

기본연구
2010-20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김 경 태

기본연구
2010-20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2010.12

충남발전연구원

ISBN : 978-89-6124-154-0 03350

기본연구 2010-20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김 경 태

발 간 사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지난 10여년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지역축제가 현재처럼 발전하게 된 원동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 및 추진 의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축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제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지원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충남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 및 전반적 발전을 위해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은 정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지원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하며,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예산 위주의 지원에서 축제별 차별화되고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축제의 객관적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의 선정, 지역축제 지원방식의 다양화,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을 위한 집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현재 충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78개 지역축제의 실태분석을 통해 충남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축제 정책수립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좀 더 세부적 추진계획에 관한 연구를 향후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원의 김경태 책임연구원, 연구자문과 부문별 집필에 도움을 주신 우송정보대학의 장인식 교수님, 충청남도 유재룡님께 고마운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박진도

연구요약

1. 연구 배경 및 목적

지금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해 온 지역축제 발전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축제가 발전을 거듭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한 정책을 10년 넘게 지속해 옴에 따라 도입 초기와는 달리 현실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존 정책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축제 지원체계에 대해 평가에 따른 예산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는 종합예술적 형태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예산, 조직, 제도, 홍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체계 방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축제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축제 전반적 발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요 연구내용

□ 주요개념 정의

- 지역축제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의 문화가 종합되고 상징화된 지역행사’로서 정의
- 지역축제 지원이라 함은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각각의 지역축제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인 예산과 간접적 지원인 축제의 기획 및 홍보, 제도, 조직, 평가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축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정의
- 지역축제 지원체계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의 총체’로 조작적 정의

□ 지역축제 지원현황 및 문제점

- 지역축제의 지원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축제의 평가, 기획 및 홍보, 예산, 조직, 제도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였음.
- 지역축제 평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축제가 내부결과보고 형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축제는 일부로서 축제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축제평가가 지원으로 연계되는 관계성 결여, 평가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축제 기획 및 홍보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축제기획은 대부분 민간이벤트 회사에서 담당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 축제추진위원회의 경우 외부의 축제전문가 및 지역전문가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군의 정책집행자와 관계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축제의 기획이나 집행과정 중 지역주민이 기획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

지고 있는 축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축제기획 시 지역주민 및 다양한 축제주체의 참여부족, 축제홍보물에 콘텐츠 구성 및 특성 반영 미흡, 축제 DB 구축 및 정보관리 미비, 축제 특성 고려가 미흡한 홍보방법 및 홍보시기의 문제점이 있음.

-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축제예산지원은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한 축제예산의 차등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통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 내의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보조 지원하고 있음.
- 도비, 시군비 등의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지원 기준의 불명확, 예산 지원의 지속성 결여, 민간부분 투자 미비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음.
- 조직차원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관광 및 문화와 관련된 부서에서 축제 행정에 관한 전반을 지원하며, 각 부서들은 축제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업무, 축제홍보 및 협조요청업무 등의 행정관련 업무에서부터 실질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업무까지 하는 등 각 행정부서의 역할과 업무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제도적 측면에서 축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충청남도는 지역축제 지원 체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례들은 비슷한 내용과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축제 조례 제정 시 각 시군의 지역성이나 축제의 규모, 수, 특성에 따라 축제조직위원회의 규모와 구성원을 달리해야 하나 현재 제정된 대부분의 축제 관련 조례는 비슷한 항목과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로, 조례 항목에 축제운영회, 사무국과 같은 실행을 위한 조직의 구성여부 및 기능과 역할,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조례내용의 개선이 필요함.

☐ 지역축제 사례분석 및 시사점

- 선행연구 및 지원현황 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원요소들을 기획·홍보측면, 조직적 측면, 제도적 측면, 예산, 평가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구분	시사점	지원방향
기획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밀한 협조관계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 철저한 마케팅 분석을 통한 홍보 방식 ● 장기적 및 지속적인 홍보활동 필요 ● 홍보의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축제전용 홍보 공간 및 홍보 방법 다양화를 위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제안 ● 축제전문기획팀 구성 ● 체계적인 민간 조직화 ● 민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중심의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및 축제 전문 인력 지원이 요구됨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조례 지정 ● 축제정례화 및 축제사무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발전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지원 대상, 지역축제의 범위, 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축제의 개최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이 요구됨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질적 수준을 고양하며 점차 유료 입장 방안을 창출하도록 노력 ● 축제의 예산을 소모적으로 소비하기보다 매년 적립하여 기금 조성 ● 정부가 지원하기 보다는 후원사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관련업체의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운영비 지원 및 축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요구됨 ● 축제기금 조성 및 민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적인 차원에서 평가 수행 ● 축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자체 모니터링전문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축제컨설팅 시스템 지원이 요구됨

3. 결론 및 정책 제언

- 이에 따른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으로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은 객관적인 축제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의 선정, 선정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방식의 다양화,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을 제안하였음.
- 먼저 충남 지역축제의 평가·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축제 평가대상과 평가 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음.
- 둘째, 지역축제를 통한 다양한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그 성과를 지역축제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방식의 다원화 전략이 필요함.
- 셋째, 지원의 가장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지역축제에 대한 사업비 지원정책으로 모든 축제들이 예산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산지원의 방법 또한 단순히 축제자체의 개척을 위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축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며, 축제 예산의 자립화를 위해 충남축제발전기금의 조성과 축제장소의 마련을 통한 축제의 입장료 부과 방안을 제안하였음.

- 넷째, 지역축제의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참여주체의 문제로 지자체 장이나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지원조직이 아니라 전문가 및 지역주민 중심의 생산적인 지원조직으로서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축제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소통의 통로와 상호간 경험과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는 축제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 지역축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므로 충남에서도 2007년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구성 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효과가 미비하여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내용, 예산지원의 근거규정, 축제발전기금의 조성, 축제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기획 및 홍보지원의 방향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을 제안했음.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3절 연구수행체계	4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1절 지역축제 정책지원에 대한 당위성	7
1. 지역축제 의의	7
2. 지역축제 주요기능	8
3. 지역축제 지원 대상 평가를 위한 분류	13
제2절 지역축제의 정책 지원체계 관련 연구	19
1. 지역축제 지원체계의 도입 필요성	19
2.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평가 관련 연구	20
3. 지역축제 지원체계 항목 관련 연구	24
제3절 종합소견 및 분석구조 설정	32
1. 종합소견	32
2. 분석구조 설정	34
제3장 충남 지역축제의 현황 및 지원실태	36
제1절 충남 지역축제 개최현황	36
1. 시기별 현황	36
2. 유형별 현황	37
3. 지역별 현황	39

제2절 충남 지역축제 분야별 지원현황 및 실태	47
1. 평가체계	47
1) 평가 일반현황	47
2) 평가 시기 및 내용	50
3) 평가주체 및 방법	51
4) 평가 지속성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51
5) 평가체계 문제점	52
2. 기획 및 홍보	54
1) 기획	54
2) 홍보	55
3) 기획 및 홍보지원의 문제점	62
3. 예산	64
1) 시군별 예산현황	64
2) 예산 지원 기준	68
3) 예산 지원체계의 문제점	69
4. 조직	70
1) 지역축제 조직 현황	70
2) 축제 집행 및 기획부문 조직 현황	72
3) 지역축제 조직체계의 문제점	75
5. 제도	76
1) 축제관련 제도 현황	76
2) 제도 지원체계 문제점	77
제3절 국내·외 지역축제 선진 지원사례 검토	78
1. 지역축제 지원 선진사례 선정	78
2. 국내·외 지역축제 지원 선진 사례 분석	80
1) 축제 평가 국내·외 선진사례	80
2) 기획·홍보 지원 선진사례	82

3) 예산 지원 선진사례	85
4) 조직 지원 선진사례	87
5) 제도 지원 선진사례	94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96

제4장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99

제1절 기본방향	99
제2절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101
1.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축제 평가	101
1)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101
2) 평가항목	102
3) 평가결과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105
2. 충남 지역축제의 기획 및 홍보 지원전략	106
1) On-line 및 홍보물 전략	106
2) Off-line 전략	107
3) 충남 지역축제 DB 구축	108
4) 축제 전문가 양성	108
3. 축제 예산 확보를 통한 축제 자립화	110
1)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110
2) 충남축제발전기금 조성	111
3) 축제장소의 마련과 축제입장료 부과 방안	112
4. 조직 지원제도 마련	114
1) 충남 축제네트워크 구축	115
2) 충남 축제전담기구로의 상설화	116
5. 축제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117

제5장 결론	119
제1절 요약 및 결론	119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122
 □ 참고문헌	123
1. 관련문헌	123
2. 관련 홈페이지	124

표 차례

<표 1-1> 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	6
<표 2-1> 개최목적에 따른 지역축제 분류	14
<표 2-2> 프로그램 구성 형식에 따른 지역축제 분류	14
<표 2-3> 축제의 유형별 분류	15
<표 2-4> 축제의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화	17
<표 2-5> 축제의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화	18
<표 2-6> 지역축제 유형별 주요 평가 기준	22
<표 2-7>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정책의 흐름	26
<표 2-8> 지역축제 지원체계 내용 종합	31
<표 2-9> 지역축제 유형별 분류	35
<표 3-1> 시기별 지역축제 개최 현황	37
<표 3-2> 지역축제 유형별 분류	38
<표 3-3> 지역별 축제 현황	40
<표 3-4> 축제별 평가방법 및 평가기관	48
<표 3-5> 축제별 홈페이지 분석 현황	58
<표 3-6> 축제별 예산 현황	65
<표 3-7> 축제별 예산 비율 현황	67
<표 3-8> 지역축제 조직 지원체계 유형별 현황	71
<표 3-9> 지역축제 지원체계 사례분석의 기준	79
<표 3-10> 축제 평가 국내·외 사례	81
<표 3-11> 기획 및 홍보 지원체계 국내·외 사례	84
<표 3-12> 축제 예산 지원 국내·외 사례	86
<표 3-13> 지역별 축제조직위원회 사례	89

<표 3-14> 축제 조직 국내·외 사례	92
<표 3-15> 제도 지원 사례	95
<표 3-16>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98
<표 4-1> 충남 지역축제 평가항목 예시	104
<표 4-2> 충남축제 아카데미 프로그램 예시	109
<표 4-3> 시·도별 축제관련 조례 제정 현황	118

그림 차례

[그림1-1] 연구수행체계	5
[그림2-1] 지역축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9
[그림2-2] 지역축제 평가방법	23
[그림2-3]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33
[그림3-1] 금산인삼축제 FI(Festival Identity) 구축 현황	61
[그림3-2] 지자체 정부주도형 추진주최 조직 유형(A 유형)	72
[그림3-3] 2010세계대백제전 추진위원회 조직도	73
[그림4-1] 지원체계 모형	100
[그림4-2] 축제의 이해관계자	11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지난 10여년간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지역축제 813개가 개최되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축제까지 합치면 여전히 1,000여개가 개최 되는 상황에서 축제 간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축제가 현재처럼 발전하게 된 배경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더불어 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 및 추진 의지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지역축제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사례는 많지 않다.

아울러 지금까지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을 추구해 온 축제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는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추월한 상태로 현재의 축제 관련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해 온 지역축제 발전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이로 인하여 지역축제가 발전을 거듭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한 정책을 10년 넘게 지속해 오며 따라 도입 초기와는 달리 현실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존 정책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교수, 그리고 관련 담당공무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그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기존에 축제 지원체계에 대해 평가에 따른 예산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으로 축제는 종합예술적 형태로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예산, 조직, 제도, 홍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역 차원에서의 지원체계 방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행정안전부)에서 작년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주요 내용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행사·축제성 경비운영’을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해 동일한 단계의 자치단체에 비해 축제 예산의 비중이 작거나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낮은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정하고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통·폐합이나 절감예산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평가해 선정된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선 보통교부세와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예를 들어 5억 원 이상) 대규모 축제를 대상으로 사전에 상급기관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축제의 자연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일몰제’를 적용해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심사와정을 거쳐 다시 신설토록 하는 방침으로 충남의 경우도 보령머드축제가 일몰제에 해당되어 예산 마련을 위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제평가 및 지원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시도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계획’과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축제평가-환류체계 확립과 축제지원체계의 제도화를 권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축제의 자생력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축제 전반적 발전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로 2010년 개최된 지역축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2009년의 경우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개최되지 않은 축제들이 상당 수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의 타당성을 위해 2010년 개최 축제를 기준으로 하였다.

충청남도에서 개최된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한 2010년도 지역축제 총괄표에 따르면 76개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분류 기준을 기초로 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의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민간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 단순한 이벤트나 전시박람회 및 일회성 행사, 그리고 지역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않는 축제를 제외한 도비 및 시군 예산이 지원되는 총 76개의 축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2) 시간적 범위

기존 문헌자료는 과거부터 2009년까지 집계된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연구를 위한 현장조사는 축제가 개최된 시기에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및 축제관계자 면담 등은 2010년 5월~10월 중 수행하였다.

3) 내용적 범위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이론적 고찰 : 지역축제 개념 및 축제지원체계
- 지원체계 실태조사 : 현장조사 및 관계자 면담조사
- 사례분석 : 축제지원체계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안

2. 연구의 방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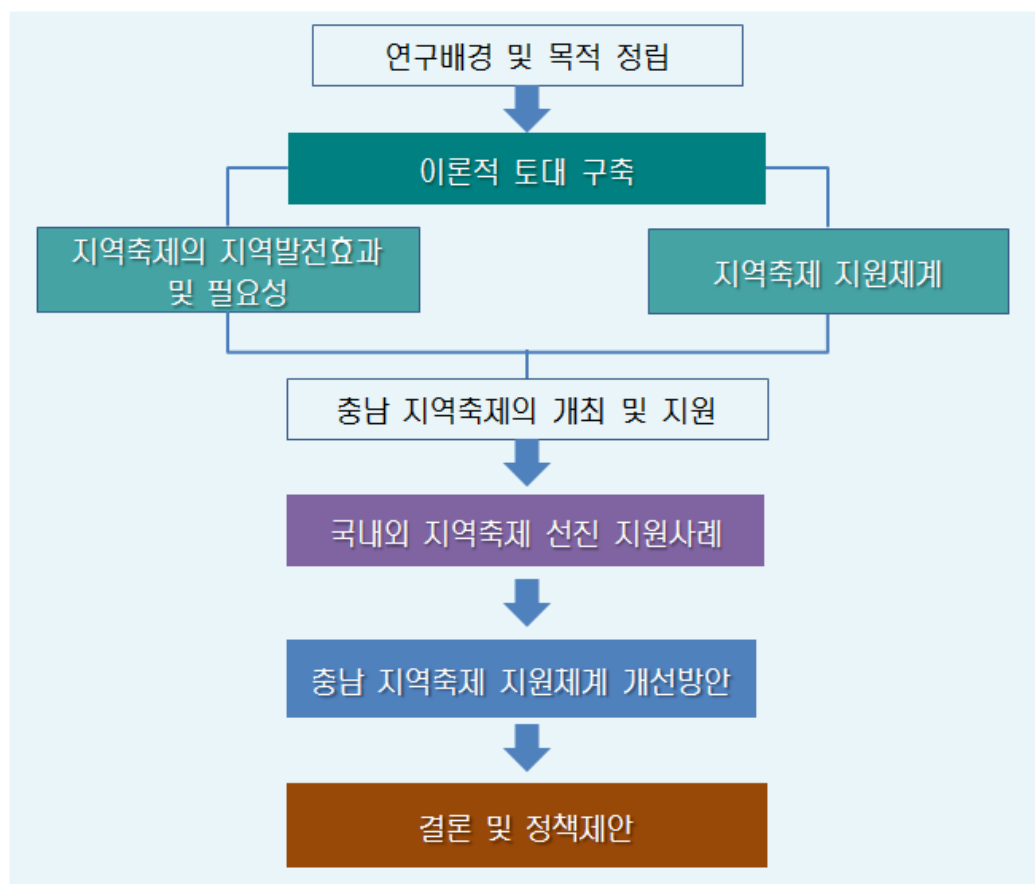
- 문헌연구 : 지역축제 및 지원체계 관련 문헌연구
- 현황조사 : 충남 지역축제 실태조사
 - 관련기관(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수행한 지역축제 실태조사 결과 활용
 - 지역 축제 관련 구체적 자료는 지자체와 연계하여 구득
- 사례조사 : 축제 유료화 사례 조사
 - 해외 :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을 대상
 - 국내 : 개별 지자체를 대상

구분	주요내용 및 방법
국내·외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축제 지원체계 분석 •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조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와 공동연구

제3절 연구수행체계

연구의 전체 수행 흐름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대상이 되는 지역축제 및 지원체계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정의된 지원체계 내용별로 평가, 기획 및 홍보, 예산, 조직, 제도 등에 대해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충청남도 지역축제 실태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충남 지역축제 지원체계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형태로 순차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수행 중에 전문가와 충남도청 공무원이 참여하는 원내 연구심의회를 개최하여 원내 및 원외 관련 전문가와 정책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표 1-1〉 연구의 방법 및 수행체계



제2장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지역축제 정책지원에 대한 당위성

1. 지역축제의 의의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축제는 기존의 전통적인 이분법적인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의적이고 다기능적인 복합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축제가 다양한 영역과 분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도 그 본질적 의미는 퇴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축제’의 개념은 탈종교화, 탈지역화(도시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카오스적인 흐름에 맞서 일정한 지리적 범위내에서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역내 지역의 동질성과 자립을 추구하는 문화적 활동을 총괄하는 의미로 전통적인 축제의 개념과는 대별되는 의미를 가진다.

지역축제를 종전에는 향토문화제, 향토(문화)축제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지금도 지역에서 개최되는 고유한 축제를 향토축제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향토축제라는 용어가 고향이라는 낭만적인 선입견으로 인하여 고장중심의 이해관계에 빠질 우려가 있으며 자기 고장 중심의 향토문화는 지역간의 갈등과 지역감정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이라는 가치중립적 용어를 써야한다는 주장도 있어 요즘은 지역축제라는 용어를 선호한다(민병호 1998).

지역축제는 전통적 의미로 지역과의 역사적인 상관성 속에 생성·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지역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에 근원을 두고 대중적이며 주제가 있는 행사 또는 볼거리·먹거리·놀거리·배울거리 등을 관광객에게 제공하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광객들이 실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제반의 행사”로 인식하여야 한다(정강환 2001).

지역축제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활동 기회 및 지출 창구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이미지 또한 향상시킨다(Getz, 1993).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지역축제의 존재 의의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와 오염에 찌든 규격화된 일상생활에서 잠시 일탈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 종교적 의식 등 자연과 사람들 간의 하나 되는 만남의 의식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얻고 지역사회 활성화와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지역축제는 공동체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건, 시기, 인물, 생산품 등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인간의 내재적 본능을 표출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허용된 제의와 놀이의 만남의 광장이 된다(함영덕, 2000).

지역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개념 정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좁은 의미의 정의로서 지역과의 역사적 상관성 속에서 생성·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다. 반면 넓은 의미로서는 전통축제 뿐 아니라 문화제·예술제·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행사 전반이 포괄된다. 오늘날에는 광의로 받아들여 지역축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지역축제가 중요한 점은 지역축제 말 그대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 공감대가 설정되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할 때 의의가 있는 것이다(김명자, 1996).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지역축제는 ‘일년 중 어느 특정한 날과 기간을 정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행사이며, 일상적인 삶과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창조해 가는 생활 양식화된 지역문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지역축제의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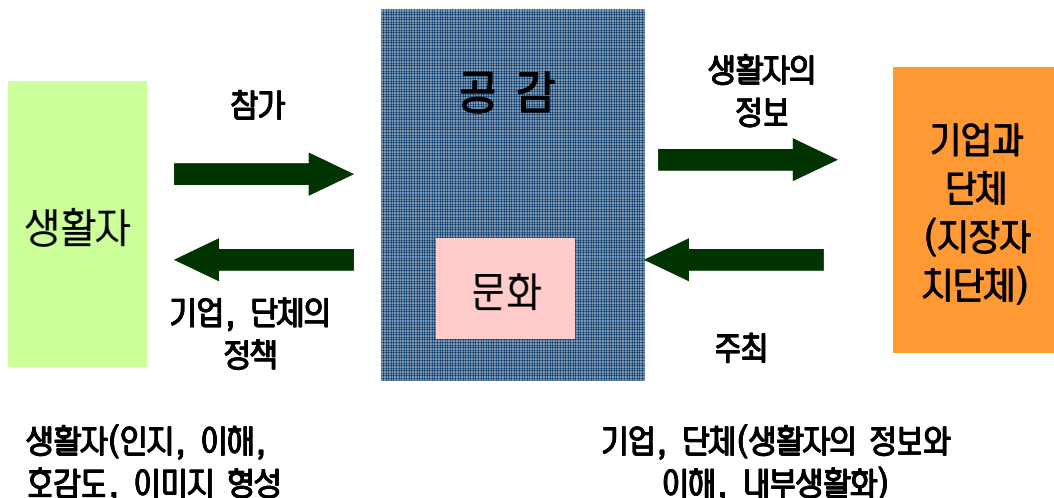
1) 지역축제의 기능

지역축제의 주요 기능은 크게 제의성을 통한 문화의 보전, 지역민의 일체감 조성, 지역의 이미지나 브랜드의 강화, 경제적 파급효과, 관광산업 활성화 기능이 있다.

이 때문에 1970년대 70여 개에 불과하던 지역축제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지역축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심혈을 기울이는 문화행사로 선호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지역의 산업발전은 제조업의 발전, 관광단지의 개발 등 하드웨어 성격의 산업에 의존하였으나, 그 이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지가 증대되고 주민들의 자치마인드도 성숙됨에 따라 전통산업의 부활, 지역별 차별화 전략, 신규산업개발, 지역축제 및 이벤트의 활성화 등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진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장병권 2000).

이러한 점에서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경제적 이익추구, 지역 이미지의 형성, 지역 주민의 융합과 조정,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축제는 지역 주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바로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지역축제는 지역 주민의 단합과 제의적 성격이 강하게 작용하였다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지역홍보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지역문화 활동으로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그림 2-1〉 지역축제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자료 : 민병호(1998).

그리고 1995년 이후 민선자치단체의 출현과 함께 지역축제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기능과 의의를 가지게 되는 데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축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가장 밀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그림 2-1>에서도 나타나듯이 지역축제는 제3의 미디어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념, 인지, 이해, 호감들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교감한다(민병호 1998)는 점은 현대 지역축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지역축제의 역할은 지역민을 하나로, 아울러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공동의 문화적 대응을 이끌어 지역 사회의 연대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발전,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의 경제발전 등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김병철, 1998).

이와 함께 지역축제는 지역민들의 삶 속에서 형성되어 바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것은 바로 지역의 생활문화 수준의 향상을 뜻하기 때문이다. 지역축제는 궁극적으로 지방 사람들끼리 서로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기 위한 문화적 행위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 축제는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인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을 통틀어 확인하는 통과의례의 하나이다(장철수, 1996).

2) 지역 발전과 지역축제

지역발전(regional development)이란 복수의 공간단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김용웅, 2003). 지역개발이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내 및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과 지역주민 등 민간부문이 의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다” 라고 하였다(김수신, 1983).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치단체들은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그 중 문화적 속성을 띠고 있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지역축제이다(추명희, 2003). 지역축제는 물질적인 욕구에서 마음의 충족이나 여유를 구가하는 방향으로 사회의 조류가 변하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전달의 매체로서 간주

되고 있다. 축제는 다수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적은 참여비용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강한 문화적 요소로 인간의 유희적 요소에 적합하며,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이나 질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체제에서 요구되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유용한 수단이다. 또한 분권화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타지방과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정영이 외2인, 2002).

지역축제를 육성하려는 중요한 뜻은 지역문화의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면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지방화가 곧 세계화를 주도하고 국가발전의 계기가 되는 기틀을 마련코자 함에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역사적으로 볼 때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관리 평가되고 계승 발전 되어온 전통있는 축제가 그리 많지 못하다. 따라서 한두 번 개최 하다가 사라진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도시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은 일회성 이벤트적 행사 성격의 축제가 많아 오랜 전통을 쌓아가기가 어려운 반면 농어촌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지역특성이나, 전통성, 역사적 인물 등을 중심으로 축제가 기획되어 해마다 축제가 반복되면서 발전할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지역축제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감안해 볼 때 ‘남도 하나까 나도 한다’는 식의 소모성 모방형 축제가 급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간에 지역축제의 중복도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으며, 불필요한 경쟁의식만 높아져 축제의 본래 의도목적이 왜곡되거나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다(김용선, 2004). 그러므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축제는 관광을 촉진시키고 관광자원을 보존하며 국가의 유산과 예술, 여가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하며 사회나 문화가 추구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는 복합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3) 지역축제의 경제적 효과 및 활성화

지역축제는 많은 부문에서 관광업과 유사한 형태의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지역축제로 인해 관람객이 유입되면 관람객의 지출효과와 지역의 소득증가 효과, 축제개최에 필요한 각종 지출을 통한 고용효과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축제는 다른 개발에 대한 촉매제로서 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관광대상이 되는 축제

와 관광목적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뒤 따라야 한다.

또한 관람객 지출뿐 아니라 특정한 지역에서 지역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건설비, 운영비, 관련 공공사업비의 지출, 관련 민간 설비투자 등으로 인해서도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된다(고속희, 2004).

지역축제이벤트 사업과 관련된 소비, 투자지출에 의하여 유발된 생산 활동은 해당 자치단체의 고용과 그에 의한 소득을 창출하며, 동시에 주민세, 사업소세 등의 지방세를 증가시킨다.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축제를 시행함으로써 지역의 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역 특정산업이 타업종과의 교류가 가능해져 새로운 산업이 발전될 기회로도 활용된다.

지역축제는 지역특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특화산업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는 지역축제로 인해 관람객 유치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 판매, 재고품 정리, 지역의 특화산업 이미지 강화 등의 직접적인 이익을 제공한다(함영덕, 2001).

지역축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 유발효과 때문이다. 지역 경제성장이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부존자원을 생산 활동에 투입하여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를 유발시키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경제 성장은 지역발전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지역경제의 양적인 팽창을 뜻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지역 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의 사회, 문화 및 정치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전도일, 2003).

지역경제 활성화란 지역 내에서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순환법칙에 따라 수행하는 생산, 소비, 투자활동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서 지역총생산의 구성요소가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지역총생산이 지역수준에서는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산업 고용자 수와 임금의 조사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축제를 새로운 생산 활동으로 볼 때 지역축제로 인한 경제활성화 과정은 지역축제를 새로운 투입요소로 보았을 때, 투입되는 예산에 의해 새로운 노동수요가 발생하고 축제로 인해 투입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새로운 수요를 갖게 만든다.

하지만, 지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재정의 한계에 의해서 무한정 투입될 수가 없다. 이러한 한계는 지역축제의 장점으로 연결된다. 즉 투입예산 이외에 스폰서에 의한 외부투자나 관람객의 소비에 의해 부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되기 때문

이다. 한편 간접효과와 유발효과를 만들어내는 지역내 노동수요와 투입물 수요는 외부지역과의 시장경제에서 열세적, 우세적 산업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경제기반산업 분석에서와 같이 지역의 성장이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산업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진다는 명제에서부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지역내 경제 활성화는 세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우선 지역경제에 투입되는 지역축제 예산과 지역내 경제 주체간 상호관계에 의해서 발생하는 간접효과와 유발효과 그리고 지역간 우열에 의한 기반산업의 효과로 구분되어 진다.

지역 경제활성화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축제를 계획할 때 유발효과와 간접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리고 지역의 경제기반 산업을 이용하는 전략을 생성하게 된다. 이 전략은 지역축제 소재와 관련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축제의 프로그램에도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결국 관람객으로 하여금 계획된 전략에 의해 소비하게 함으로서 축제 예산이 경제기반 산업에 사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유발효과 및 간접효과 이외에도 관람객의 소비에 따른 유발효과와 간접효과도 최대한 발휘하게 만든다.

즉, 관람객의 소비지출의 흐름도 기존 유발효과와 간접효과를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에 따라 흐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축제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김성현, 2004).

3. 지역축제 지원 대상 평가를 위한 분류

지역축제의 종류에 대한 분류는 분류자나 분류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여 왔다. 정강환(1996)은 중심소재 혹은 주제형태에 따라 농업 특산물, 전통 및 공업 특산물, 지역의 기후 및 지형적 특성, 꽃(식물), 음식·음료, 역사적 사건·인물,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주제 혹은 자원의 유형에 따라 축제를 분류하였다.

유영대 외 2인(1996)은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에 따라서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나누었고, 지역축제의 프로그램 구성 형식에 따라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분류하였다.

〈표 2-1〉 개최목적에 따른 지역축제 분류

구 분	내 용
주민화합축제	• 해양지역 전통축제, 구민의 날, 시·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벌이는 축제이벤트
관광축제	•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 (부산바다축제, 자갈치문화관광축제, 보령머드축제, 소백산 철쭉제 등)
산업축제	• 수산업 및 농림축산업, 상업 등의 발전도모 (고성명태축제, 고창수산물 축제, 대변멸치축제 등)
특수목적축제	• 환경보호,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곳 (장보고 축제, 행주대첩제, 무주반딧불축제 등)

자료 : 유영대 외2인(1996).

전통문화축제와 종합축제는 서로 유사하거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요 프로그램의 구성 형식에서 전통문화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를 종합축제로 보지 않고 전통문화축제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축제는 주로 전야제, 공개행사, 전통문화행사, 현대적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부대행사 등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구성된 축제를 가르킨다.

〈표 2-2〉 프로그램 구성 형식에 따른 지역축제 분류

구 분	내 용
전통문화축제	• 지역의 전승설화나 풍습에 유래하여 개최되는 축제이벤트, 전통적인 제례의식, 전통예술 및 민속놀이 위주로 구성된 축제이벤트(강릉단오제, 풍어제 등)
예술축제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현대적인 전시예술 및 공연예술 위주로 구성된 축제이벤트와 서구 문화적인 축제이벤트(부산국제영화제, 광주비엔날레, 춘천연극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
종합축제	• 전통문화 축제이벤트 형식, 예술축제이벤트 형식, 체육행사 및 오락프로그램 등이 혼재되어 있는 축제이벤트(보령머드축제, 이천도자기 축제 등)
기타축제	• 체육행사를 비롯한 오락프로그램 위주의 축제이벤트, 아가씨 선발대회 위주의 축제이벤트, 추모제사 형식 및 이와 관련된 학술행사 등 주로 독창성이 있는 단일한 소재나 내용으로 구성된 축제이벤트(자갈치문화관광축제 등)

자료 : 유영대 외2인(1996).

문화체육부(1997)는 군민의 날과 같은 주민 화합형 축제, 지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형 축제, 지역의 특수인물들을 추모하는 특수목적형 축제,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제, 지역의 문화 발전 및 문화적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한 축제, 지역 산업의 육성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로 유형화 하였다.

김병철(1998)은 축제의 지향성에 따라 축제를 분류하였는데 개최목적이나 목표대상에 따라 내부지향형과 외부지향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축제의 소재나 프로그램 형식에 따라 지역주민의 귀속감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향형 전통축제와 현대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지역주민화합,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 등 사회·문화적인 목적을 가진 내향형 현대축제로 분류하였다. 외부지향형 축제는 전통문화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지역 경제에 대한 축제의 파급효과가 목적인 외향형 전통축제와 지역의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현대적 소재로 구성된 지역축제로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외향형 현대축제로 분류하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9)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축제를 내용과 개최목적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제의 행사, 민속예술제, 전통문화제와 같은 축제를 주민화합형 전통축제, 각종 시민의 날이나 군민의 날 행사 혹은 현대적 의미에서의 문화예술제를 주민화합형 현대축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전통 문화적 요소를 관광상품화하거나 지역특화산업으로 개발한 축제인 남원춘향제나 강릉단오제와 같은 지역경제 육성형 전통축제, 지역의 자연조건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을 중심으로 새롭게 개발된 현대적 소재의 축제들로 부친 판타스틱 영화제, 대관령 눈꽃축제와 같은 지역경제형 현대축제로 유형화 하였다.

채용식 외2인(2001)은 축제유형을 전통축제, 진보하는 전통축제, 상업화된 전통축제, 비공동 단독축제, 다문화 민속예술축제로 구분하기도 했다.

〈표 2-3〉 축제의 유형별 분류

구 분	내 용
전통축제	•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고 전통문화에서 유래하며 대부분 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많음
진보하는 전통축제	• 전통문화에서 유래하며 전통축제와 유사하나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전통문화를 적응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상이
상업화된 전통축제	• 축제행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의도적으로 축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이는 민속 문화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축제행사가 대중 속에서 움직이는 까닭에 오히려 각광을 받고 있음
비공동 단독축제	• 일부 단독축제는 그 문화 밖의 다른 사람의 연출에 의해 축제가 기획됨
다문화 민속예술축제	• 많은 민속 문화의 재료들이 연출되며, 대부분이 이러한 축제의 연출자는 민속예술가, 학자들과 절충하려는 경향이 뚜렷하여 비영리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짐

자료 : 채용식 외2인(2001).

이경모는(2002)는 축제이벤트를 크게 개최기관별, 프로그램별, 개최목적별, 자원유형별, 실시형태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개최 기관별로는 지역 자치단체 주최축제, 민간단체 주최 축제로 구분하였고 프로그램별 분류에서는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로 분류하였다. 개최 목적별로는 주민화합축제, 문화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 축제로 나누었으며, 자연, 생활용품, 역사적 사건, 특산물, 역사적 인물, 음식, 전통문화를 자원 유형별 분류로 세분화하였다.

이무용(2005)은 행사내용이나 구성형식에 따라 지역의 전통설화나 풍습에 유래하여 개최되는 전통문화축제, 현대예술과 공연예술 위주로 구성된 예술축제형식, 체육 및 오락 프로그램 등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종합축제와 앞에서 분류한 기준 이외에 체육행사나 오락프로그램 위주의 축제를 기타축제로 분류하였다.

류정아(2007)는 축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한 국가 중심형축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형 축제, 축제추진위원회 등 민간조직을 결성하여 민간 조직이 중심인 민간 중심형 축제, 지역주민 스스로가 만들고 운영하는 주민중심형축제, 전문대행사가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대형 행사 중심형 축제, 주민·자치단체·대행사 등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 운영하는 네트워크 중심형 축제로 유형화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축제의 분류방법은 학자들 마다 서로 다르고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의 지역축제는 여러 가지 유형의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무용(2005)은 이러한 이유를 축제가 단일 문화적 행사와 달리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연 예술, 전시, 영상, 문학, 음악 등 복합적인 축제 프로그램으로 조직되어 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축제 프로그램의 대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조직했느냐에 따라 축제의 성격도 다양하게 구분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축제는 특정한 주제나 목적으로 조직된 주요 프로그램을 가지며 그것을 보충하거나 풍부하게 해줄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기획되기 때문에 축제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역축제의 유형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축제의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화

분류	내 용
개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공공이벤트, 기업의 홍보나 상품선전 및 세일즈 목적의 사기업 이벤트, 지역민들의 자발적 운영에 의한 지역사회축제로 구분
개최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화합 :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 온 전통문화축제를 비롯하여 최근에 많이 개최되기 시작한 구민의 날이나 시군민의 날처럼 주민화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축제 :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축제 : 관광축제를 제외한 다른 산업 분야, 즉 농림, 축산업, 어업, 상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목적축제 : 환경보호 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기 위한 축제
역사적 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축제와 현대축제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형 축제 : 지역의 자연물을 중요 소재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형물형 축제 : 지역에만 독특하게 있는 시설, 거리 등의 특정한 조형물을 소재로 하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및 인물형 축제 : 지역의 역사나 신화적 혹은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실시하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형 축제 : 해당지역에만 있는 특성화된 음식을 주제로 하여 실시하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사형 축제 : 각종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하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행사형 축제 : 지역의 전통제례나 민속행사를 소재로 하여 실시하는 축제
주제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특산물, 전통공예 특산물, 기후, 지형적 특성, 꽃, 음식, 음료 등
축제의 지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지향형 축제 : 지역주민의 지역귀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통문화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한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지향형 축제 :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목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축제
행사내용 및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축제 : 지역의 전승설화나 풍습에 유래한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축제 ; 현대적 전시예술 및 공연 예술 위주의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축제 : 전통문화축제형식, 예술축제형식, 체육행사 및 오락프로그램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축제 : 위에서 분류한 축제 외에 체육행사를 비롯한 오락프로그램 위주의 축제
운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중심형 축제, 지방자치단체 중심형 축제, 민간 중심형 축제, 주민 중심형 축제, 대행사 중심형 축제, 네트워크 중심형 축제

축제의 유형을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분류를 축제의 중심 소재 및 주제, 개최목적에 따른 유형을 기초로 분석하고자 한다.

명확한 소재 및 주제는 소재의 차별성과 지역의 고유성을 반영하고 축제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최목적별 유형화는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축제 테마가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류에 비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재 및 주제, 개최목적의 속성을 교차적으로 고려해 자연친화형 축제, 문화예술형 축제, 지역특성화 축제, 지역특산물 축제, 전통문화축제로 축제 유형을 구분하였다.

〈표 2-5〉 축제의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화

분 류	내 용
자연 친화형 축제	• 지역에 존재하는 산림, 하천, 공원, 바다, 동·식물 등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축제, 생활공간과 근접한 자연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친근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축제
문화예술 축제	•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축제와 지역주민들을 위안하거나, 문화적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한 공연 및 예술 축제
지역특성화 축제	• 지역의 경제, 관광, 문화,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관계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개최하는 축제
지역특산물 축제	• 지역의 주요 특산물을 소재로 해당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는 축제
전통문화 축제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축제 주요 소재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역사적인 문화 자원의 발굴 및 전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제2절 지역축제의 정책 지원체계 관련 연구

1. 지역축제 지원체계의 도입 필요성

1) 지역축제 지원 의의

지원(支援)의 사전적 의미는 ‘지지하여 돕는다’는 뜻으로 타인에게 제공 되어지는 모든 물질적 심리적 정보적인 도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말해 지원이란 시장 상황에 맡겨서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사회적 필요나 편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분야를 존치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말한다. 즉, 보존자제와 더불어 특정한 요소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발전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원이란 ‘혜택’이나 ‘수혜’의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하며, 그 목적과 방향에 맞게 발전하도록 하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발전에 대한 투자이자 동시에 유도 기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라도삼 외, 2003).

기존의 지역축제 지원이라 함은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원만을 일컬어 왔다. 하지만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적 정책뿐 만 아니라 간접적 지원이라 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책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지역축제 지원의 개념은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각각의 지역축제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인 예산과 간접적 지원인 축제의 기획 및 홍보, 제도, 조직, 평가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축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정의 할 수 있다.

2) 지역축제 지원의 필요성

국민 소득의 증가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가 생활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지역축제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축제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적 부문의 지원을 위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축제마다 축제지원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배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평가기준 또한 객관적이지 않아 축제 예산 집행과 지원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무용, 2005). 또한 자치단체장의 선호도에 따른 지원, 객관적 타당성이 증명되지 않은 특정 축제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 등이 지역축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축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적 부문의 지원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다. 각각의 지역축제가 갖는 고유한 특성과 축제 본연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역축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 주관단체에 지원하는 방식이 직접적 재정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여 간접적인 행정 및 제도적 지원 부분을 추가로 증대 시켜야 할 것이다.

2.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평가 관련 연구

축제평가란 개별 축제 또는 소수의 축제들의 세부내용에 대한 평가이거나 또는 특정 개최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개발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문화관광축제로의 전환이 양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축제를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방향 및 지원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와 지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본적인

평가와 지원만 행해지고 있을 뿐 축제가 준비되는 전 과정에 대한 사전, 도중, 사후 평가라는 평가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있어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축제의 목적 및 지향점이 축제의 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훈(2002)은 지역축제 평가에 있어 삼각측량방식을 강조하였는데, 참여관찰, 방문객 설문조사, 운영자와 봉사자의 면접조사를 동시에 실시해야 함을 제안한바 있다.

배만규(2002)는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축제 수용태세가 상이한 축제 개최 지역 및 유형에 따라 평가지표의 배점을 달리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화연대(2004)는 참관평가, 설문조사, 준비평가, 시행평가, 사후영향 평가 등 축제 조직 및 기획, 준비과정, 현장내용, 재정규모, 행사장 및 프로그램, 문화 및 경제 효과 등을 평가해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신동일(2005)은 제주형 축제평가 모델 연구에서 제주도는 지리적 환경이 타지역과 상이하여 문화관광부 축제 평가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불이익을 받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주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제주형 우수 선정 및 평가기준을 축제 전 평가(20%), 축제 중 평가(60%), 축제 후 평가(20%)로 단계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우수 축제를 선정하는 방식을 주장하였다.

이무용(2005)은 서울형 축제 발전 및 체계적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는데, 서울형 축제를 서울다움과 축제다움이 겸비되면서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축제로 규정하여 축제의 본질적 구조 및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전제한 평가의 필요성을 제언한바 있다.

백선헌(2006)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문화축제 평가체계는 축제 개최방식의 효율성과 방문객 만족도 분석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축제의 목표달성과 관련된 평가 항목의 부재성과 문화관광축제 평가체계가 지방자치단체 축제정책에서 관광적 특성이 미미한 축제들의 평가와 지원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류정아(2007)는 문화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축제지원정책을 구분하여 지역의 수준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축제의 고유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육성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적 효과를 차후에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축제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일괄적인 평가 결과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축제평가모델 개발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러 축제평가모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 <표 2-6>와 같이 축제목적별로 유형화하여 일반적인 공통적 평가 항목 외에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한 주요 평가 기준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축제 유형을 자연 친화형 축제, 문화예술 축제, 지역특성화 축제, 지역특산물 축제, 전통문화 축제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별 평가기준을 일반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 보다 축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항목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표 2-6> 지역축제 유형별 주요 평가 기준

구분	주요 목적	유형별 주요 평가기준
자연 친화형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존 지역 생태적 특성 홍보 • 생태 및 자연학습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호 및 보존 • 환경교육프로그램 • 자연 학습효과 • 환경보전 및 지역의 자연 생태적 특성 • 프로그램 및 행사장 전반 표현 정도
문화예술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의 특성 및 표현 효과 • 예술문화체험과 학습 및 문화교류 효과 • 예술문화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성 • 지역문화예술인의 참여 • 예술프로그램의 수준 • 문화예술 경험효과
지역특성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소재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이미지 • 관광
지역특산물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 지역 특산물의 상업적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산물의 지역성 반영정도 • 특산물의 인지도 및 판매량 • 특산물 전시 및 홍보효과
전통문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문화 체험 • 전통문화 보존 • 전통문화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의 향토성 • 지역문화의 정체성 •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도 • 역사 및 민속적 표현의 정확성 • 교육 및 체험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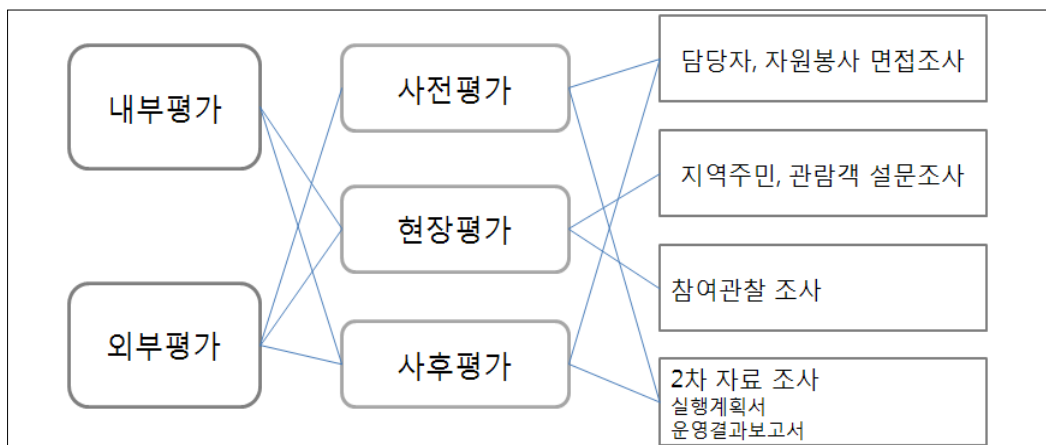
자료 : 기존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이처럼 유형별로 주요 평가기준을 달리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축제가 가지는 지역 고유의 성격 혹은 축제 자체의 차별함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됨으로써 야기되는 축제 획일함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축제를 평가하기 위해 <그림 2-2>와 같이 평가대상에 있어 지역주민,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축제담당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면접조사, 축제현장의 참여관찰 조사 등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평가 대상도 다양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평가 시기 면에서는, 축제가 개최되는 기간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개최되기 전부터 평가하는 사전평가, 축제 진행 중 일 때 평가하는 과정(현장) 평가, 축제가 끝난 후 평가하는 사후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평가체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또한 평가의 주체에 따라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지역축제 조직내에서 실시하는 내부평가를 통해 축제추진조직의 집행전략과 효율적 관리 및 평가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 개최 중에 또는 사후에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사업관리 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한다. 또한 축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외부평가를 하는데 이는 축제 진행 중이거나 사후에 실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에 평가를 의뢰해서 합동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2> 지역축제 평가방법

자료 : 기존연구를 토대로 연구자 작성

지역축제 평가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제과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은 축제 지원에 있어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역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평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지역축제 지원체계 항목 관련 연구

체계(體系)라 함은 ‘일정한 방식이나 양식으로 서로 결합된 부분들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원리에 의하여 낱말의 것의 계통을 세워 조직한 전체’를 뜻한다. 지역축제 지원체계라 함은 ‘지역축제의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의 총체’라 정의할 수 있다.

지역축제의 지원체계는 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역축제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위해 절대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축제 관련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지역축제 지원체계 방향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지역축제 관련 중앙정부 지원정책

일반적인 지역축제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의 축제 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지원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축제 지원정책 측면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역축제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소관으로 1998년부터 외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지원해 오고 있다. 현재 다양한 지역축제들 중에서 시·도 대표축제를 선정해서 그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천하면 선정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제 지원정책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매년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차년도 지원 대상 축제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지정축제 수를 축소하고 지원규모는 확대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과거 정책국 소관으로 지원되던 지역전통 민속축제에 대한 지원과 특성화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정비에 따라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시도, 시군구 대표축제 지정과 지정축제에 대한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거리축제, 생태자원축제 등 유형별 특성화 강화, 민간주도 및 자생적 축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주도형 축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전환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축제조직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시·군·구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축제 평가, 축제자문위원회 구성, 대표축제 선정기준, 예산지원 기준 등에 관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며, 시도별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계획과 그 ‘성과’를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통폐합 축제는 익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시·도에 일정부분 관광기금 지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축제 개선관련 법적 근거 마련계획으로 지역축제 실태조사, 평가 및 구조조정 권고 조항 등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지역축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 평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역축제 운영매뉴얼, 지역축제 구조조종 시범사례집 등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지역축제 지원정책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김규원(2001)은 축제의 목적이 다양한 만큼 문화관광부만의 지원이 아닌 축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행자부,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침 및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마케팅 방법에서의 지원 확대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도 함께 병행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무용(2005)은 정부의 문화정책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축제 지원정책 역시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의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정책은 <표 2-7>과 같이 지방자치정부의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정책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표 2-7〉 문화정책과 축제 지원정책의 흐름

구 분	문화정책	지역문화정책	축제정책	비고
생성기	1·2공화국	국민계몽	-	-
발아기	3·4공화국	민족문화강조	전통문화보존	민속경연대회 지방문화제 실시
도약기	5·6공화국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지방문화중흥 5개년 계획수립	지역문화행사 지원
성장기	문민정부	문화복지 개념도입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 수립	문화관광축제 지원 시작
	국민의정부	문화산업 중시 민간참여 활성화	지역문화의 해 선포	문화관광축제 지원 본격화
	참여정부	문화개념 확장	지역균형개발	선택과 집중
	실용정부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방협력사업 대폭 발굴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자료 : 이무용(2005), 서울형 축제발전 및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2008)를 참조로 작성성

이훈(2006)은 문화관광부와 같은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중앙정부는 전국적 수준에서 축제의 방향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해, 중앙 차원의 전문 인력과 축제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국제적인 홍보와 마케팅 및 국제적 차원에서 문화관광축제를 지원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류정아(2006)는 현재 정부 부처별 지역축제 지원체계에 관련한 법적 근거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축제지원의 법적근거가 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46조 4항¹⁾, 제71조1항²⁾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축제가 가지는 문화적 본질보다는 축제가 가져오는 2차적인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축제를 관광상품으로 보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의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류정아(2007)는 지역축제 평가에 있어 내부적 프로세스 관점 측면에서 축제기획,

1)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홍보 및 관광자원개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제71조(재정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축제예산, 축제조직, 축제홍보 측면에서 평가항목을 제안하였다. 축제기획부문은 축제의 기획 및 운영 주체에 관한 부분으로 전문가 활용, 축제 준비성, 의사결정의 원활성을 강조하였고, 축제예산부문은 재정자립도와 예산항목 구성비로 구분하여 자체재원 구성비율의 적합성과 예산배분 적합성 및 자율성, 효율성, 축제조직은 축제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한 부분으로 민관협력 정도, 유관기관의 협조, 축제홍보는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부분으로 홍보 매체의 다양성 및 활용도, 차별적 전략 및 사후홍보 전략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역축제의 내부적 평가항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축제 지원체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중앙정부의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정책은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기준이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정책목표와 지향점 및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는 약하다. 단순히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기금법에 의한 ‘문화관광축제 육성·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이나 제도적 규정은 축제 지원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의 축제 지원정책은 현실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축제 지원에 관한 좀 더 체계적인 규정, 혹은 법률 등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방향이나 지원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축제 관련 지방정부 지원정책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지원정책은 지역의 특정 축제를 대상으로 한 정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다.

문화연대(2004)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축제 771개를 조사한 결과 개최하는 주체가 관 주도인 경우가 5.3%, 민간 주도인 경우 41.3%, 민·관 공동 주도인 경우 52.9%, 기타 0.5%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축제가 수치상으로는 민간 주도형 축제가 압도적인 편이나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대다수 축제가 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상정한다면 실질적인 관 주도의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상당수의 축제가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관의 행정적인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다는 점이다. 담당 부서가 예산내역

을 관리하면서 가능한 선에서 축제행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권오성, 2006).

채원호 외(2003)는 지역축제는 축제 지식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지역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개입되어야 하고, 총체적, 포괄적, 능동적 의미의 문화 특히,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정서인 지역문화를 다루는 지역문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현식(2004)은 지방정부 축제 지원정책을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축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축제가 비교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의 지원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지역축제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와 축제가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독자적인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무용(2005)은 축제홍보와 관련하여 철저한 수요 및 욕구조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축제 홍보 및 축제 캐릭터 및 브랜드의 개발을 강조하였다. 또한 축제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안정된 입장료 수익, 스폰서 활용의 용이함 및 축제 안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조직 측면에서 민간화를 통한 축제 운영의 안정성, 전문성,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축제 발전을 위한 평가 측면에서는 축제 관련 조례를 통하여 평가를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통해 평가의 안정화를 제안하였다.

류정아(2006)는 중앙정부에서 육성하는 국가대표축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하는 지역축제의 발전 전략이 서로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주체와 실행주체의 불일치성으로 인해 전체 지역축제의 발전전략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공공부문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축제에 참여하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원정책과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지원정책을 구분하여 지역 수준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축제의 고유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육성한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광적 효과를 차후에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훈(2006)은 지역축제의 지원정책은 지역 역사와 문화 및 여가의 관점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축제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차원에서 축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즉, 축제의 상상력과 지속력을 위해서는 지역인 민간문화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교육 등 사람에 대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3) 지역축제 지원체계

앞에서 살펴본 지역축제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살펴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은 중앙정부는 축제에 대한 거시적 틀과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인 축제지원과 평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현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정책은 특별한 법적·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현재 축제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축제가 가져오는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축제를 관광상품으로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의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다(류정아, 2006).

지방정부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 권한이 없으므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독자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축제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의 일괄적인 운영 및 축제가 비교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행정지침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법적인 근거 안에서 지역차원의 축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전제과정이라 할 수 있는 평가체계는 지역축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축제에 대한 평가는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 단계에 걸친 모든 과정에서 평가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축제 조직 자체가 실시하는 내부적인 자체 평가뿐만 아니라, 축제 방문객과 전문 연구기관 등에 의한 외부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평가지원 체계의 내용으로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시스템의 운

영, 축제 관련 토론회 및 공청회의 개최 및 결과의 효율적 활용, 평가분석 자료의 공유정도, 평가분석 자료의 적정성 등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는 지역축제 지원정책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다각적인 평가시스템으로 평가된 축제 유형과 범주에 따라 각각 다른 예산 및 홍보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축제가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축제의 예산이다. 따라서 축제 지원정책에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이 자생력이 약할 경우에 의미가 있다.

이무용(2005)은 축제가 내용적으로 충실하였다 하더라도 축제를 소비하고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축제의 성공은 장담할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축제홍보 지원정책은 축제 내적으로는 축제의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단계에 이르기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축제 외적으로는 축제가 처음 개최되는 단계에서부터 의미있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고 경쟁력이 강화된 축제 성숙 단계에 따른 효과적인 전략 수립을 강조하였다.

홍보 매체의 다양성 및 집중성, 온라인 매체 활용도와 매체의 안정성, 홍보 및 마케팅 방법, 기업 스폰서 쉽, 기자간담회, 축제설명회 등에 관한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 축제 개최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지역과 축제에 정통한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를 지방정부는 축제조직 측면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역축제의 양적증가와 다양한 주제의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다양한 분야의 축제 전문인력 양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역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축제 조직의 안정적 및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화된 축제 조직은 축제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이에 합당한 축제 운영계획의 수립과 인적 자원의 확보를 가능케 하여 지역축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축제조직과 관련한 지원내용으로는 축제사무국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축제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 축제 조직위 위원의 민·관 관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축제 기획 및 실행 평가 등에 민·관의 개입정도에 관련한 지원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축제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바는 없지만 이들 논의에서 공통된 의견은 축제평가는 축제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고 축제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및 홍보 지원의 형태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원정

책은 사후평가를 통해 예산 및 홍보지원이 잘 이루어졌는지 재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모든 축제의 지원 정책은 법이나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축제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때 지역축제로서 자율성이 보장되며, 독자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고 축제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지방정부의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작적 정의와 지원내용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다.

〈표 2-8〉 지역축제 지원체계 내용 종합

지원체계	조작적 정의	지원 관련 내용
기획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준비단계부터 사후단계까지의 장기적인 플랜 및 처음 개최되는 단계부터 경쟁력 있는 성숙단계의 축제 기획 및 홍보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매체의 다양성 및 집중성 • 온라인 매체 활용도와 매체의 안정성 • 홍보 및 마케팅 방법 • 기업 스폰서쉽, 기자간담회, 축제설명회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가지기 위한 조직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사무국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 축제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 • 축제조직위원의 민·관 관계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 정도 • 축제 기획 및 실행 평가 등에 민·관 개입정도 • 관·민, 지역사회, 문화·학술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일괄적인 운영에 관한 법률적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관련 법령, 조례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법령상 재정 및 예산 회계법상의 예산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구성 비율(국비, 시비 구성 비율) • 예산구성의 자립도 • 축제의 비중과 비교한 예산규모 • 축제예산 사용의 사후평가 • 축제예산 사용을 위한 축제 담당기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준비단계부터 사후 단계에 걸친 모든 과정에서 평가를 위한 지원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및 외부평가 시스템의 존재여부 • 축제관련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 및 활용여부 • 평가분석 자료의 사후 공유 정도 • 평가분석 자료의 적정성 • 평가 자료의 활용 정도

자료 : 조혜정(2008), 인천광역시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제3절 종합소견 및 분석 구조 설정

1. 종합소견

제1절과 제2절에서 정리하고 있는 지역축제의 개념 및 지역축제의 지원체계 개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지역축제를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 지역의 문화가 종합되고 상징화된 지역행사’로서 정의하고, 지역축제 지원은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각각의 지역축제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인 예산과 간접적 지원인 축제의 기획 및 홍보, 제도, 조직, 평가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축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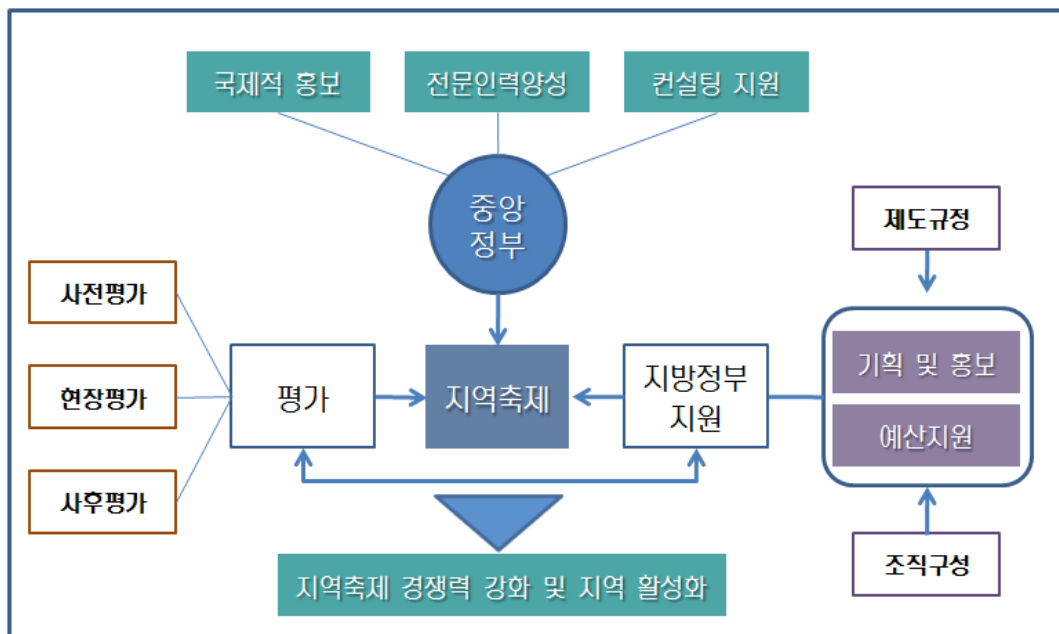
이러한 지역축제와 지역축제 지원의 조작적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의 지역축제 지원체계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의 총체’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지역축제는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기준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지역축제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공적 부문의 지원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제 예산 배정이나 객관적 평가체계의 부재로 인한 예산집행과 지원기준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축제 정책의 기준 마련보다는 특정 축제를 위한 정책 수립으로 시행되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에 지원하는 방식이 직접적 재정지원에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완하여 간접적인 행정지원 및 제도적인 부분을 추가로 증대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축제 지원체계 방안 마련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즉, 지역축제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축제로서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의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역축제 지원체계 수립의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지역축제 지원체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1차적으로 축제의 기획 및 홍보, 조직, 제도, 예산, 평가 부분에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사후단계까지 지방정부의 체계적인 축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즉, 충남 지역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축제 지원 정책의 수립과 충남 지역축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축제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 체계적인 지원체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축제 관련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자치 정부의 정책 및 관련 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지역축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은 지역축제 지원체계의 제도화 문제와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 및 독자적인 축제 추진 조직의 설치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앙정부의 지역축제 지원체계 방안은 전국 및 국제적 수준에서 축제의 방향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방 정부 지역축제 지원체계는 지원에 앞서 평가를 통한 예산 및 홍보의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제도적 규정과 조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3〉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2. 분석 구조 설정

지역축제의 지원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축제의 평가, 기획 및 홍보, 예산, 조직, 제도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축제평가의 경우 축제 평가시스템 존재의 여부, 내부평가 또는 외부평가 시스템유무 여부와 평가의 항목과 관점 및 평가결과 피드백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축제의 기획 및 홍보의 경우는 각각 요소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기획의 경우 기획주체와 기획단계에서 주민참여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홍보 시기, 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온라인의 경우는 각 시군 및 축제홈페이지를 정보제공 현황,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현황, 관리 및 운영현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예산과 관련한 부분은 지역 축제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 및 수산과 등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축제를 포함한 축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각 축제별 예산 지원 기준 및 예산구성비와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넷째, 조직측면에서는 각 시군에서 조직한 지역축제조직위원회, 축제와 관련된 조직(문화재단 및 지방문화원)의 구성 및 역할과 현 운영행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지역축제 및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례제정의 목적, 제정 시기, 위원회 설치 여부, 사무국 설치 여부, 축제 평가관련 항목의 여부, 자료공개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2-9〉 지역축제 유형별 분류

지원 체계	구분		분석대상	분석내용
평가	충청남도 각 시군		• 충청남도 각 시군 축제 평가시스템	• 평가 시스템 유무 • 평가 시기 및 내용 • 평가 주체 및 방법 • 평가 지속성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기획 및 홍보	기획		• 기획하는 주체 • 기획단계의 주민참여 여부	• 기획주체
	홍보	온라 인	• 각 시군 홈페이지 • 개별축제 홈페이지	• 홍보시기 및 방법 • 홍보대상 • 홈페이지 분석 - 정보제공 현황(이전 축제 정보 구축, 축제 프 로그램, 외국어 안내, 주변관광자원 및 역사자 원, 홍보물) -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현황(커뮤니케이션 제 공기능, 홈페이지 연계여부) - 관리 및 운영현황(축제정보관리)
		오프 라인	• 축제 관련 홍보물 및 책 자 • 축제 FI(Festival Identity) 및 브랜드	• 홍보시기 및 방법 • 홍보대상
예산	충청남도		• 충청남도가 개최하는 축제 • 각 시군에 예산 지원하 는 축제	• 예산지원 비용 • 예산지원 기준 • 재원구성비
	시군		• 각 시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조직	충청남도		• 충남문화축제발전협의 회	• 구성 및 역할 • 운영형태 및 축제지원 업무
	시군		• 지역축제조직위원회	
	공통		• 문화재단 및 지방문화 원	
제도	충청남도		• 축제지원에 관한 조례 • 문화예술진흥 조례	• 조례제정 목적 • 조례제정 시기 • 조례내용 및 항목 • 평가자료 공개여부

자료 :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제3장 충남 지역축제 현황 및 지원실태

제1절 충남 지역축제 개최현황

충청남도를 비롯한 지역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문화의 질,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특성을 활용하여 지역축제를 육성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최근 지역축제의 세계화, 충남 문화요소 발굴 등의 사업을 제시하며 축제를 통한 지역브랜드의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계한 2010년도 지역축제 총괄표에 따르면 76개 축제가 개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분류 기준을 기초로 하여 충청남도 문화예술과의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하였다. 민간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 단순한 이벤트나 전시박람회 및 일회적 행사, 그리고 지역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 축제, 처음 개최되는 축제를 제외한 도비 및 시군 예산이 지원되는 총 73개의 축제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일반적인 축제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기별, 유형별, 지역 및 주제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시기별 현황

분석대상 지역축제를 개최시기별로 살펴보면 3월~5월 봄철에 개최되는 축제가 20개 27.4%, 6월~8월 여름철에 개최되는 축제가 13개 16.4%, 9월~11월 가을에 개최되는 축제가 37개 50.7%, 12월~2월 겨울철에 개최되는 축제가 4개 5.5%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해양과 내륙 그리고 다양한 역사적 문화가 있는 곳으로 사계절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봄철의 경우 꽃을 주제로 한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여름의 경우 해안을 중심으로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며, 가을철의 경우 농수특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와 지역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한 축제가 많이 개최되고 있다.

〈표 3-1〉 시기별 지역축제 개최 현황

개최시기	축제명	축제수 (개)	백분율 (%)
3월~5월 (봄)	• 천안 판 페스티벌, 계룡산도자기축제, 계룡산산신제, 마곡사신록 축제, 공주시우리밀축제, 무창포주꾸미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논산딸기축제, 비단고을산꽃축제, 금강변벚꽃축제, 서천동백꽃주꾸미축제, 서천자연산광어·도미축제, 칠갑산장승문화축제, 윤봉길문화축제, 몽산포주꾸미축제, 면천진달래축제, 순성매화벚꽃축제, 기지시줄다리기민속축제, 한진바지락축제, 장고항실치축제	20	27.4
6월~8월 (여름)	• 고마나루축제, 보령머드축제, 삼길포우럭축제, 서산해미읍성문화 축제, 팔봉산감자축제, 논산병영체험축제, 금강민속축제, 조치원 복숭아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한산모시문화제, 태안육쪽마늘 축제, 태안어살문화축제	12	16.4
9월~11월 (가을)	• 천안흥타령축제, 공주알밤축제, 공주허수아비축제, 2010세계대백 제전, 대천해변통기타음악축제,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무창포 해변예술제, 무창포대하·전어축제, 성주산단풍축제, 천북굴축제,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간월도바다음식 축제, 서산6쪽마늘축제, 서산6년근인삼축제, 천수만철새기행전, 강경발효전갈축제, 상월명품고구마축제, 연산대추축제, 계룡축제, 계룡세계군문화축제, 금산인삼축제, 도원문화제, 흥원향전어축제, 칠갑문화제, 청양고추구기자축제, 홍성내포축제, 홍성남당항대하 축제, 광천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 김좌진장군전승기념축제, 예 산옛이야기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신진도꽃게축제, 백사장대하 축제, 당진쌀사랑음식축제, 삼교호조개구이축제, 상록문화제	37	50.7
12월~2월 (겨울)	• 양촌곶감축제, 장동달맞이축제, 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 왜목해돋 이축제	4	5.5
계		73	100.0

자료 :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작성

2. 유형별 현황

분석대상 지역축제는 제2장 축제유형 구분에서 제시하였듯이 자연친화형, 문화예 술형, 전통문화형, 지역특산물형, 지역특성화형 축제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 관광, 문화,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관계를 갖고 있는 특별한 소재 를 활용하여 개최하는 지역특성화 축제가 8개(11.0%),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축제 와 지역주민들을 위안하거나, 문화적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한 영화, 연극, 무용, 음 악, 공연 및 예술 등의 문화예술 장르적 성격의 아이টে을 주제나 소재로 삼고 있는 문화예술형 축제가 7개(9.6%),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축제의 주요 소재로 하여 프로

그럼을 구성하고 역사적인 문화자원의 발굴 및 전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문화축제가 13개(17.8%)로 조사되었다. 지역의 주요 특산물을 소재로 해당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물축제와 같은 지역특산물축제가 36개(4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에 존재하는 산림, 하천, 공원, 바다, 동·식물 등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축제 또는 생활공간과 근접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자연친화형 축제가 9개(12.3%)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의 지역축제는 지역의 농수특산물을 활용한 지역특산물형 축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전통문화축제와 자연친화형축제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아이템 및 축제 프로그램 개발 시에 충남이 가지고 있는 생태자원이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적절히 활용한 축제의 기획과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축제의 분류는 개최목적과 소재 및 주제 등 분류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 3-2〉 지역축제 유형별 분류

유형	축 제 명	축제수 (개)	백분율 (%)
자연 친화	•마곡사신록축제, 성주산단풍축제, 천수만철새기행전, 비단고을산꽃축제, 금강변벚꽃축제, 부여서동연꽃축제, 면천진달래축제, 순성매화벚꽃축제, 왜목해돋이축제	9	12.3
문화 예술	•천안흥타령축제, 천안판페스티벌, 고마나루축제, 대천해변통기타음악축제, 무창포해변예술제, 온양온천문화예술제, 예산옛이야기축제	7	9.6
지역 특성 화	•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논산병영체험축제, 계룡축제, 계룡세계군문화축제, 홍성내포축제, 김좌진장군전승기념축제, 윤봉길문화축제	8	11.0
지역 특산 물	• 계룡산도자기축제, 공주알밤축제, 공주우리밀축제, 무창포주꾸미축제, 보령머드축제, 무창포대하전어축제, 천북굴축제, 간월도바다음식축제, 삼길포우럭축제, 서산6쪽마늘축제, 서산6년근인삼축제, 팔봉산감자축제, 강경발효젓갈축제, 논산딸기축제, 양촌곶감축제, 상월명품고구마축제, 연산대추축제, 금산인삼축제, 조치원복숭아축제, 동백꽃주꾸미축제, 한산모시문화제, 자연산광어도미축제, 홍원항전어축제, 고추구기자축제, 남당항새조개축제, 남당항대하축제, 광천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 예산황토사과축제, 태안육쪽마늘축제, 몽산포주꾸미축제, 신진도꽃게축제, 백사장대하축제, 당진쌀사랑음식축제, 삼교호조개구이축제, 한진바지락축제, 장고항실치축제	36	49.3
전통 문화	• 계룡산신제, 공주허수아비축제,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서산해미읍성문화축제, 장동달맞이축제, 금강민속축제, 도원문화제, 세계대백제전, 칠갑산장승문화축제, 칠갑문화제, 태안어살문화축제, 상록문화제, 기지시줄다리기민속축제	13	17.8
계		73	100.0

자료 :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자 작성

3. 지역별 현황

충남의 지역축제 개최지역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 2개, 공주시 8개, 보령시 8개, 아산시 3개, 서산시 7개, 논산시 6개, 계룡시 2개, 금산군 4개, 연기군 3개, 부여군 2개, 서천군 4개, 청양군 3개, 홍성군 5개, 예산군 3개, 태안군 5개, 당진군 9개가 개최되고 있다. 공주시, 보령시, 당진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공주시의 경우 문화예술과 관련된 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보령시의 경우 해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시군의 경우 주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역사적 자원이 분포되어 이를 활용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진군의 경우 공주-당진간 고속도로 개통이후 지역에서 개최되어 온 축제 중에서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지원을 받는 축제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지역축제가 지역의 농수산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많았다. 즉, 지역축제 콘텐츠가 가지는 문화성이나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약화되어 개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충남의 시군별 지역 축제들은 대표적인 축제라고 보기에는 축제의 콘텐츠 및 대표성이 약하여 지역의 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찾아 축제콘텐츠와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축제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주꾸미축제, 대하전어축제, 굴축제, 감자축제, 밤축제 등과 같이 지역과 관련된 음식이나 먹거리를 주제로 하는 축제가 총 32개로 전체의 4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주제로 개최되는 축제는 17개로 22.4%, 자연친화형이 11개 14.5%, 지역예술형이 10개 13.2%, 지역특성화 축제가 6개 7.9%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서해안을 중심으로 계절별 수확되는 먹거리를 주제로 한 축제가 많았으며, 이에 따라 축제 주제의 중복이 많았으며, 지역의 특화된 주제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들어 지역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특화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제의 콘텐츠 및 대표성이 약하여 지역의 문화, 역사적인 자원을 찾아 축제콘텐츠와 연계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3-3〉 지역별 축제 현황

시군명	축 제 명	개최기간/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주관 (연락처)
천안시	천안흥타령축제	10.1~10.5 (5일간)	거리퍼레이드, 춤 경연, 체험행사 등	
	2 천안판페스티벌	5.23~5.25 (천안명동거리일 원)	미술실기대회 전국민요경창대회 민촌백일장	
공주시 8	계룡산 도자기 축제	5.15일~20일 (6일간)	도자기 만들기 체험 다양한 무대공연 자연생태체험/인간생태체험/ 자연예술체험, 봄꽃 체험 등	
	계룡산 산신제	4.29전후 (4일간)	유·불·무가식 산신제 양화리 주민참여 다양한 민속공연 등	
	마곡사 신록축제	4.30~5.2 (3일간)	보물찾기등 다양한 민속공연 템플스테이,그림그리기대회 등	
	고마나루 축제	7.24~8.15 (기간중8회)	시민참여마당 다양한 공연 등	
	공주 알밤축제	10.1~10.5 (5일간)	공주알밤전시 품평회 알밤줍기, 알밤깍기, 밤굽기 체험, 이벤트행사 등	
	허수아비 축제	8~9월중 (2개월)	8월 :허수아비 만들기 허수아비 들녘 전시등	
	공주시 우리밀축제	5.29~6.6 (8일간)	체험행사(지게질,탈곡,디딜 방아,국수만들기, 비누만들기,밀떡구워먹기등) ,전시행사(옛농기구,가축,전 통화장실) 놀이체험(궁령쇠놀이,제기차 기,나무바퀴자동차놀이등)	
	2010 세계대백제전	9.18~10.18 (30일간)	백제열전(수상공연) 세계역사도시전시관 웅진성의하루 웅진성퍼레이드 백제등불(유등)향연	

표 계속

시군명	축 제 명	개최기간/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주관 (연락처)
보령시 8	무창포 주꾸미축제	3월~4월 (1개월)	체험프로그램 관광객체험프로그램, 무창포가요제, 주꾸미 아저씨 선발대회 등	
	보령머드축제	7.17~25 (9일)	체험행사(23),기획전시(7) 연계행사(15),야간행사(10)	
	대천해변통기타 음악축제	10.8월	통기타가수및인기가수 라이브콘서트	
	무창포신비의 바닷길축제	10.8월 (3일)	햇불어업재현, 맨손고기잡기, 독살어업, 선상낚시체험 등	
	무창포 해변예술제	10.8월	관광객참여행사및 인기가수공연등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10.9월~10월 (1개월)	대하잡기체험,독살어업 선상낚시체험등	
	성주산단풍축제	10.10월	관광객장기자랑,연예인 축하공연,특산물전시홍보	
	천북굴축제	10.12월 (9일)	체험행사(굴까기,굴무게 맞추기,굴알기게임등) 민속놀이(연,설패,투호,윷,팽이, 제기차기등)	
아산시 3	아산 성웅이순신축제	4.28-5.2 (5일간)	이순신동상천수식, 개·폐막식, 이순신 멀티쇼, 퍼레이드, 기네스도전 그래피티, 문화콘텐츠 공모전, 초청공연, e-sports 대회, 전통저장거리 체험,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10.8-10.10 (3일간)	개·폐막식, 주제공연, 송악두레 논매기시연, 각종 공연 등	
	온양온천 문화예술제	10.8-10.10 (3일간)	개·폐막식,상설체험프로그램 (맹정승어록씨주기등),온궁행렬, 설화무용제,설화국악한마당, 미술실기대회,풍물경연대회 등	

표 계속

시군명	축 제 명	개최기간/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주관 (연락처)
서산시 7	간월도 바다음식축제	2010.10월예정	갯벌체험,어선체험,대하잡기 등	
	삼길포 우럭축제	2010.6.11~ 13(3일간)	10,000인분우럭비빔밥시식 우럭치어방류행사, 우럭포요리및조개캐기체험	
	서산6쪽마늘축제	2010.10.2~ 3(3일간)	6쪽마늘+한우체험행사, 6쪽마늘요리경연대회, 서산6쪽마늘테마행사	
	서산6년근인삼축제	2010.10.9~ 10(2일간)	6년근인삼캐기체험행사, 농특산물판매장운영, 인삼을활용한경연 등	
	천수만철새기행전	2010.10.22~ 11.30(40일간)	철새탐조기행, 생태관운영,서식지보호사업추 진, 국제탐조행사등	
	서산해미읍성문화축제	2010.6.11~ 13(3일간)	충청병마절도사출정식,무예수 련원,고유제,중요무형문화재 공연,전국마상무예대회 등	
	팔봉산감자축제	2010.6(미정) 2일간	감자체험행사, 팔봉산감자기네스, 이색감자이벤드, 숲속의작은음악회 등	
논산시 6	강경발효젓갈축제	10.20-10.24 (5일간)	젓갈전시판매, 문화행사	
	병영체험축제	6.12-6.13 (2일간)	육군훈련소테마여행 병영식사체험,병영내무반체험 각개전투.중합장애물체험 병영영어캠프,병영음악회 특공무술및총검술시범등	
	논산딸기축제	4월9일~ 4월11일 (3일간)	딸기수확체험, 딸기케익,잼만들기 등	
	양촌곶감축제	12월중	공식행사,체험·이벤트행사,공 연 행사,상설행사,부대행사	
	제2회상월명품 고구마축제	9월말 (2일간)	고구마수확체험,홍보관및판매 관,고구마음식시식회및경연 대회,각종문화공연등	
	연산대추축제	10.15.~17. (3일간)	새총으로대추맞추기,대추던져 많이받기,대추박터트리기,대 추정량달기,대추씨멀리빨기,	

표 계속

시군명	축 제 명	개최기간/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주관 (연락처)
계룡시 2	2010 계룡축제	9.18 (1일간)	팔거리축제,이통장체육대회 문화단체문화활동 시민화합공연등	
	2010계룡세계 군문화축제	10.1~5 (5일간/잠정)	공식/공연/이벤트행사,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등	
금산군 4	장동달맞이축제	2010.2.27 (1일간)	대보름민속놀이,송액연날리기, 산신제및탐제,달등놀이,금산풍 물 판굿,달집태우기,달빛가요제등	
	비단고을 산꽃축제	2010.4월중 (2일간)	꽃길여행, 생태자원 전시 및 체험마당운영, 자연미술제, 농악, 판소리, 시낭송, 시화전시 등	
	금강민속축제	7.31~8.1 (2일간)	물떼기농요,농바우끄시기공연, 문화예술공연,민물고 기전시,짚풀공예전시,여울고기 잡이놀이체험등	
	금산인삼축제	9.3~9.12 (10일간)	건강웰빙체험, 인삼캐기체험, 인삼교역전, 금산전통민속공연, 인삼요리경연대회 등 각종 인삼약초관련 전시/ 체험/공연/경연/스포츠이벤트 등	
연기군 3	도원문화제	10.1-2 (2일간)(잠정)	1.복사꽃한마음축제 2.복사꽃아가씨선발대회 3.으뜸숨씨경연대경연대회 4.군민화합한마당	
	조치원 복숭아축제	8.7-8.8 (2일간)	1.조치원복숭아전국가요제 2.공개방송 3.복숭아아줌마선발대회 4.복숭아수확체험행사 5.복숭아품평회	
	금강변 벚꽃축제	4월 초순	식전공연, 불꽃놀이,풍물놀이, 초청가수공연,노래자랑,체험마 당,축하공연	

표 계속

시군명	축 제 명	개최기간/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주관 (연락처)
부여군	2010 세계대백제전	9.18~10.18 (30일간)	개막식, 수상공연,재·불전, 역사재현, 전통민속공연, 문화예술공연, 기획전시, 함께하는 행사 등	
	부여 서동연꽃축제	7.22.~7.26.	연꽃주제관운영,상설체험, 문화예술이벤트,경연.전시등	
서천군	동백꽃 주꾸미축제	3월	동백꽃감상과주꾸미요리 판매,특산물판매등	
	한산모시문화제	6.11~6.14 (4일간)	한산모시우수성홍보및판매 모시패션쇼,각종이벤트등	
	자연산광어, 도미축제	5월	요리장터,특산물판매 광어잡기체험등	
	홍원항전어축제	9월	요리장터,특산물판매 전어잡기체험등	
청양군	제12회칠갑산 장승문화축제	4월10일 (1일간)	.개막식 .칠갑산장승대제 장승명문식 .장승짜기시연 .마을장승제시연 .가족장승짜기 .부대행사	
	제15회 칠갑문화제	10월1일 (1일간)	.군민의날기념식 .산신제 .청사초롱점등 .굿시연,장승및뿌리공예전시 .제기차기대회 .농악시연,투호놀이,민속씨름	
	고추구기자축제	9.5~9.7 (3일간)	전야제,불꽃놀이,큰고추선발 대회,마당놀이, 연예인공연,농악놀이 고추장터,각종체험마당등	

표 계속

시군명	축 제 명	개최기간/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주관 (연락처)
홍성군 5	2010. 홍성내포축제	9.11~9.13 (3일간)	장터재현체험행사, 문화예술공연등	
	제8회홍성남당항 새조개축제	1.23~2.5 (14일간)	새조개잡기체험, 송어잡기체험 등	
	제15회홍성 남당항대하축제	9월 중	대하잡기체험, 관광객노래자랑 등	
	제15회광천토굴 새우젓재래맛김 축제	10월중	오서산등반대회,토굴체험, 김치담그기체험등	
	제8회김좌진장군 전승기념축제	10월중	연극공연, 거리퍼레이드 등	
예산군 3	제37회윤봉길문화축제	4.28~4.29 (2일간)	상해의거기념다례행사 경축행사,체험행사,경연대회 등	
	제3회예산옛이야기축제	9.10~9.12 (3일간)	공연행사,체험행사,경연대회 등	
	제13회예산황토사과축제	2010.11월경	황토사과아가씨선발,사과품평 회,사과따기,음악회등	
태안군 5	제4회 육쪽마늘축제	6.18~6.20 (3일간)	전시, 마늘요리 시연회, 문화행사	
	제2회몽산포 주꾸미축제	4.3~4.18 (16일간)	어장체험,시식회, 몽산포항사진전, 전통어구전시	
	제3회 신진도꽃게 축제	10월중 (3주간)	어촌체험, 수산물 시식회 등	
	제11회 백사장대하축제	10월중 (3주간)	어촌체험행사(물고기잡기,감 짜경매,보물찾기)	
	제3회 어살문화축제	7월중 (3일간)	어살문화체험,치어관찰, 조개및고기잡이대회	

표 계속

시군명	축 제 명	개최기간/ 장소	축제주요내용	주최/주관 (연락처)
당진군 9	제14회당진쌀 사랑음식축제	10.7~10.10 (4일간)	쌀주제전시관,쌀요리대 회, 농산물직거래	
	제10회 면천진달래 축제	4월중	진달래백일장,진달래청 소년 가요제,복지검장군추모 식 민속사진전시회	
	제6회삼교호 조개구이축제	10월중 (3일간)	갯벌체험,조개경매,붕장 어잡기,망둥어낚시 불꽃쇼,화합의노래한마 당등	
	순성매화 벚꽃축제	4.10~11 (2일간)	불꽃놀이,점등행사,노래 자랑, 청소년문화축제,1단체1 경기추진, 지역특산물 판매 등	
	상록문화제	10월중 3일간	추모식,기획행사,문학행 사,전시 행사,참여행사기타이벤 트행사등	
	기지사줄다리기 민속축제	4.7~4.10 (4일간)	민속행사,공연행사,학술 행사, 줄나가기,줄다리기등	
	한진바지락축제	4~5월중	바지락캐기 등	
	왜목해돋이축제	12.31~1.1	해넘이행사,기획행사, 전시행사,해돋이행사, 체험행사등	
	장고향실치축제	4월중	실치시식회,해산물체험, 기획행사,불꽃놀이등	

제2절 충남 지역축제 지원현황 및 실태

1. 평가체계

1) 평가 일반현황

평가기관 주체에 따라 평가방법의 종류를 내부결과보고, 내부평가, 외부평가 3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축제가 종료되고 난 후 축제관련 부서 및 기관에서 결과보고 형식으로 진행하는 내부결과보고, 축제를 기획한 주체 또는 축제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민간업체 또는 민간단체에서 평가를 실시하는 내부평가, 축제의 행정 및 기획 등 축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외부의 업체, 단체,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평가를 진행하는 외부평가로 분류하였다.

충남 지역축제 대부분이 내부결과보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부 도지원 대표축제와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3-4> 참조).

축제 중 민간단체에서 주최를 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대부분이 내·외부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으며, 시·군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내부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지역축제의 규모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축제의 경우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소규모 지역축제의 경우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외부평가의 경우 문화관광축제인 천안홍타령축제,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서천한산모시문화제 등과 도지정 축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았다.

〈표 3-4〉 축제별 평가방법 및 평가기관

구 분	축제명	평가 방법		
		내부결과 보고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천안시 2	천안흥타령축제	○	◎	☆
	천안 판 페스티벌	○	◎	×
공주시 8	계룡산 도자기 축제	△	△	△
	계룡산산신제	△	△	△
	마곡사신록축제	△	△	△
	고마나루축제	○	◎	×
	공주알밤축제	○	◎	×
	허수아비축제	△	△	△
	공주시 우리밀축제	△	△	△
	2010세계대백제전	○	◎	☆
보령시 9	무창포주꾸미축제	○	◎	×
	보령머드축제	○	◎	☆
	대천해변통키타음악축제	○	◎	×
	무창포해변예술제	○	◎	×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	◎	☆
	무창포대하전어축제	△	△	△
	보령호친환경농산물축제	△	△	△
	성주산단풍축제	△	△	△
아산시 3	천북굴축제	○	△	△
	아산성웅이순신축제	○	◎	☆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	◎	×
서산시 7	온양온천문화예술제	○	◎	×
	서산해미읍성문화	○	◎	☆
	팔봉산감자축제	○	◎	×
	삼길포우럭축제	○	◎	×
	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	○	◎	☆
	간월도바다음식축제	○	◎	☆
	서산6쪽마을축제	○	◎	×
	서산6년근인삼축제	△	△	△
논산시 6	논산딸기축제	○	◎	☆
	육군훈련소병영체험축제	○	◎	☆
	강경발효젓갈축제	○	◎	☆
	명품고구마축제	△	△	△
	연산대추축제	△	△	△
	양촌곶감축제	△	△	△

표 계속

구 분	축제명	평가 방법		
		내부결과 보고	내부평가	외부평가
계룡시 2	계룡축제	○	×	×
	2010계룡세계군문화축제	△	△	△
금산군 3	비단고을산꽃축제	△	△	△
	금강민속축제	△	△	△
	금산인삼축제	○	◎	☆
연기군 3	도원문화제	○	◎	☆
	왕의 물 축제	△	△	△
	조치원복숭아 축제	○	◎	☆
부여군 2	2010세계대백제전	○	◎	☆
	부여서동.연꽃축제	○	◎	☆
서천군 4	한산모시문화제	○	◎	☆
	동백꽃 주꾸미 축제	○	×	×
	자연산 광어도미축제	○	×	×
	홍원항 전어축제	○	×	×
청양군 3	칠갑산봄꽃축제	△	△	△
	칠갑산장승문화축제	○	◎	×
	고추구기자축제	○	◎	×
홍성군 5	제8회 남당새조개축제	○	×	×
	제15회 남당리대하축제	○	×	☆
	제15회광천토굴새우젓조선김반찬대축제	○	△	△
	홍성내포사랑큰축제	○	◎	☆
	제8회김좌진장군전승기념축제	○	×	×
예산군 3	제37회 윤봉길문화축제	○	◎	☆
	제3회예산옛이야기축제	○	◎	☆
	제13회 예산사과축제	○	◎	☆
태안군 5	제2회 몽산포주꾸미추거제	△	△	△
	태안육쪽마늘요리축제	○	◎	☆
	제3회 어살문화축제	○	◎	☆
	제3회신진도꽃게축제	△	△	△
	제11회백사장 대하축제	○	△	△

표 계속

구 분	축제명	평가 방법		
		내부결과 보고	내부평가	외부평가
당진군 9	제1회당진황토감자축제	○	◎	☆
	제14회당진쌀사랑음식축제	△	×	×
	제10회면천진달래축제	○	△	△
	제6회삼교호조개구이축제	○	×	×
	순성매화벚꽃축제	△	△	△
	상록문화제	○	◎	×
	기지사줄다리기민속축제	○	◎	☆
	한진바지락축제	△	△	△
	왜목해돋이축제	△	△	△
	장고향실치축제	△	△	△
합 계	73			

주 : ○ 내부결과보고, ◎ 내부평가, ☆ 외부평가, △ 미확인, × 평가미실시를 나타낸 것이며, 2010년 기준으로 조사, 세계대백제전은 공주, 부여 동시개최

2) 평가 시기 및 내용

강해상(2004)은 축제의 평가시기를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의 단계인 사전평가, 축제 과정 단계의 평가를 실행평가, 축제 종료 후의 평가를 사후평가로 나누어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 과정, 사후평가로 나누어 평가시기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평가시기별 축제평가 현황을 살펴보면 보통 축제 과정에 이루어지는 과정평가로 프로그램 만족도, 접근성, 주변 관광지 연계성 등에 관한 축제 장소에 관한 만족도와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설문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현장평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그램 평가, 축제장 및 동선 설계에 대한 평가, 무대장치 등의 설치 전반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 관찰조사(모니터링)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사후평가로 축제 후 언론의 보도여부와 관람객 소비지출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3) 평가주체 및 방법

대부분의 축제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축제는 없었다. 문화관광축제의 경우 방문객, 프로그램 기획 관련자 및 주최자, 내외부의 전문가 등 가장 다양한 평가주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 지원축제의 경우 전문가 평가단에 의해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축제기간 중 공연 및 프로그램 진행 기간 동안 전문가 현장모니터링을 통한 축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선사항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으며 외부업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어 비슷한 평가주체와 방법, 평가내용으로 구성되어 이루어 졌다.

보통 축제과정 중의 평가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 프로그램에 관한 이용 만족도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각각 설문조사 방법과 전문가 참여관찰(모니터링)방법을 통해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축제 관련 관계자 및 전문가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문화축제의 경우는 관찰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재대학교 이벤트관광경영학과 재학생을 미리 선발하고 사전교육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4) 평가 지속성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매년 책정되는 예산에 따라 지역축제의 평가여부가 결정되어 평가 결과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여 축제개선 및 발전에 활용하는 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역축제와 관련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시군의 경우는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과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대부분 내부관계자, 공무원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져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관광축제 지정과 도지정축제로 지정되기를 원하는 지역축제의 경우 평가가 지속성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평가결과 반영여부에 있어서도 비교

적 반영이 잘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축제에서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결과 반영에 있어서도 전년도 행사를 답습하는 형식으로 결과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5) 평가체계 문제점

(1) 축제평가와 지원간의 관계성 결여

분석대상 지역축제 중 외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관광축제와 도지원축제를 포함한 관광형 축제의 축제평가방법을 살펴본 결과 내부결과보고 또는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외부평가를 실시 중인 축제의 경우 내부평가만을 실시하는 축제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다양한 방법, 시기에 따라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 방법, 시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평가를 하였으나 결과가 실제 다음해 축제에 반영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축제관계자는 평가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축제 평가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여 그 평가결과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적 차원에서 축제평가와 지원이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이 양적평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 없이 축제를 기획한 기획사, 해당 시군의 공무원에 의해 주로 진행하여 객관적 관점에서 평가가 될 수 없는 문제점과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을 포함한 축제 평가주체가 다양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축제에 대한 평가가 양적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 및 다면적 평가(평가 대상 및 조사 대상의 세분화 등)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명확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축제성과를 관리하고 축제가 성장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축제평가의 지속성 및 연속성 결여

지역축제 평가는 매년 예산에 따라 추가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평가를 하는 년도와 미 실시하는 년도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축제평가 결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각 시군의 경우는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과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가의 방향과 목적 정립을 통해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평가 자체를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나 과정으로 인식하여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 축제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 필요

축제가 기획되는 단계, 축제가 진행되는 단계와 축제가 종료된 이후의 시점까지 전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는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었으며, 보통 축제과정에서의 평가, 축제종료 이후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류정아(2007)는 관중심의 축제과정을 축제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획일적인 평가체계에서 탈피하여 축제개선을 위한 종합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축제는 방문객과 지역주민 교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역축제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충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과정이 수동적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았으며 행정가들 중심의 개최에서 벗어나 지역문화와 개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중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축제의 전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이 축제에 주체자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구조 확보와 함께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생력 있는 축제를 생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기획 및 홍보

1) 기획

지역축제 개최 주체는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주관의 경우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을 하거나 각 시군에 설립되어 있는 문화원이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획은 축제추진위원회의 하부기구로 사무국이나 운영국을 편성하여 기획하기도 하였고, 문화원이 직접 기획하거나 문화원에서 다시 민간 이벤트 기획사로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 축제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경우 축제의 기획은 민간 이벤트 회사에서 담당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경우도 외부의 축제 전문가 및 지역전문가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군의 정책집행자와 관계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축제의 기획이나 집행 과정 중 지역 주민이 기획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축제는 거의 없었다.

축제 기획과정에서 축제의 테마선정 및 브랜드 기획 시 우선 축제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축제를 소비하는 타겟설정 및 분석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축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명확한 개최목적은 축제의 방향성과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정립해 줄 수 있어 구체화되고 일관된 축제로 성장하도록 해주므로 기획과정에서 명확한 목적과 목표설정의 과정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축제가 개최되기 2~3개월 전에 축제를 진행할 추진단을 구성하거나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원이 모여 축제기획을 진행하고 있어 보통 전년도 축제 프로그램 및 행사운영 방법 등을 사용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또한 축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이뤄지기에 시간적 여유가 불충분하여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축제전문가 등의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각 시군 또는 축제위원회, 문화원은 민간업체 및 이벤트를 선정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축제 기획의 자율성, 독창성, 창의성 등이 다소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획일화되는 경향을 나타났다.

2) 홍보

Alastair. M(1989)은 홍보란 잠재관광객에게 관광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각종 관광 정보를 신문, 잡지, 라디오, TV 등의 매스미디어를 통해 기사 또는 뉴스의 형태로 보도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홍보는 축제가 일어나는 장소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홍보의 전반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세부적인 홍보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지역축제의 홍보는 기업의 스폰서십 또는 축제의 물적 결과물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축제 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축제홍보 지원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축제의 홍보 방법으로는 신문, 라디오, TV 등 각 매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홍보, 기자간담회, 축제설명회 등을 통한 직접 홍보, 광고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지역축제의 홍보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축제 홍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현황파악을 실시하였다.

축제의 홍보는 보통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축제시작 2~3개월 전부터 홍보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홍보방법으로는 방송사, 인터넷, 라디오를 통한 홍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팜플렛, 브로셔 등을 통한 인쇄홍보, 홍보현판 제작 및 현수막, 배너, 종합안내판 등을 통해 홍보하는 옥외홍보 등을 실시하였다. 문화관광축제나 도 지정축제 등 규모와 예산이 확보된 축제의 경우는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축제를 홍보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인터넷 홍보, 인쇄홍보, 현수막 및 배너를 설치하는 옥외홍보 정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온라인 홍보

온라인 부분의 축제 홍보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축제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은 사이트의 정보제공의 적절성 정도,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의 정도, 관리 및 운영현황을 조사하였다.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개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축제는 총 13개였으며, 이외의 대부분 축제들은 각 시군의 홈페이지의 문화관광 코너를 통해서 축제를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축제명, 축제시기, 축제장소, 축제목적 및 특징과 같은 개략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각 축제별 홈페이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축제 정보제공의 적절성, 정보교환 및 의견 수렴 여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첫째, 정보제공의 적절성은 이전에 개최된 축제정보가 구축되어있는지의 여부, 축제프로그램을 방문객이 알기 쉽도록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다른 언어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 주변의 관광자원 및 역사자원을 소개하고 있는지의 여부, 사진, 동영상, 팸플렛 등의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둘째,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여부는 참여마당이나 지역주민, 축제참가자들이 의견을 게재하거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묻고 답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는가의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다른 축제홈페이지와의 연계성, 축제와 관계된 타 축제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가 연동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3-5> 참조).

이전에 개최된 축제정보가 가장 잘 구축되어있는 축제 홈페이지는 금산인삼축제로 최초 개최년부터 현재까지의 축제현장 사진자료를 구축해 놓고 있었으며 다른 축제홈페이지와 차별화된 점은 회원가입방법을 사용하여 자원 활동가, 방문객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으나 회원가입자와 그렇지 않은 자와의 차별성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어 안내의 경우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백제문화제 등 문화관광축제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의 외국어 안내를 실시하고 있었다.

각 축제홈페이지에서는 홍보물 및 동영상, 사진 등을 게재하여 축제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루트로 정보를 제공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일부 지역 대표축제의 경우는 배경화면으로 가능한 웹 페이지, 웹 팸플렛, 동영상 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블로그, 싸이월드 타운이나 미니홈피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축제의 경우 자체홈페이지가 구축은 되

어있지 않았지만 블로그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여마당과 같은 축제관계자와 방문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으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응답의 신속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소규모 축제의 경우는 축제장에서 느낀 불만, 애로사항을 게재하였으나 주관, 주최측이 이에 대한 답변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이용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 머드축제의 경우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 한하여 무료제품 및 초대권을 인천공항 안내소, 여행사 등에 배부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가정,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연계 추진하였으며, 이외에도 충남도청, 한국관광공사 등에 자체 제작한 축제동영상물 배포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축제홈페이지를 개편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통해 운영하는 축제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통일되지 못한 축제명의 병기, 축제시기의 잘못된 기입, 연계된 홈페이지를 적절히 링크시켜주지 못하는 등 축제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축제홈페이지 구성 및 콘텐츠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문화관광축제와 도지정 축제 등 일정 규모를 가진 축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축제들이 시군 홈페이지에 당해년 축제에 대한 간단한 개요 위주의 소개로 그치고 있었으며, 방문객의 경우 별도 홈페이지가 아닌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참여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축제 홈페이지의 경우 축제 개최 후 폐지가 되어 축제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는 다음 년도 축제 개최에 있어 연속성을 가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어 재방문객의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축제 홈페이지에 있어 외국어를 제공하는 것은 일부 축제에 극히 제한적이며 외국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어 명기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5〉 축제별 홈페이지 분석 현황

시군명	축 제 명	정보제공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관리 및 운영
		이전 축제 정보 제공	축제 프로그램 제공	외국 어안 내	주변 자원 정보 제공	홍보 물 제공	커뮤니케이션 제공	홈페이지 연계	축제 정보 관리
천안시 2	천안흥타령축제	×	○	○	×	○	○	○	○
	천안판페스티벌	×	○	×	×	○	×	×	×
공주시 8	계룡산분청사기축제	×	○	×	×	×	×	×	×
	계룡산산신제	×	○	×	×	○	×	×	×
	마곡사신록축제	×	○	×	×	×	×	×	×
	공주시 우리밀축제	×	△	×	×	×	×	×	×
	고마나루축제	×	△	×	×	×	×	×	×
	공주알밤축제	×	△	×	×	×	×	×	×
	허수아비축제	×	△	×	×	×	×	×	×
	2010세계대백제전	△	○	○	○	○	○	○	○
보령시 9	무창포주꾸미축제	×	○	×	×	○	×	×	○
	보령머드축제	○	○	○	○	○	○	○	○
	대천해변통기타음악축제	×	△	×	×	×	×	×	×
	무창포해변예술제	×	△	×	×	×	×	×	×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	○	×	×	○	×	×	○
	무창포대하전어축제	×	○	×	×	○	×	×	○
	보령호친환경농산물축제	×	△	×	×	×	×	×	×
	성주산단풍축제	×	○	×	×	○	×	×	×
아산시 3	천북굴축제	×	○	×	×	○	×	×	○
	아산성웅이순신축제	○	○	×	×	○	○	○	○
	짚풀문화제	×	○	×	○	×	×	○	○
서산시 6	온양온천문화예술제	△	○	×	△	○	×	○	×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	○	×	○	○	○	○	○
	팔봉산감자축제	×	○	×	○	×	○	○	○
	삼길포우럭축제	×	○	×	○	×	×	○	
	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	×	○	○	○	×	○	○	○
	간월도바다음식축제	×	○	×	×	×	×	×	×
	서산6쪽마을축제	×	○	×	×	×	○	○	×
	서산6년근인삼축제	×	○	×	×	×	×	×	×

주 : ○ 정비, △ 정비되어있으나 다소 미흡, × 정비 미비를 나타낸 것임. 2010년 기준으로 조사

표 계속

시군명	축 제 명	정보제공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관리 및 운영
		이전 축제 정보 제공	축제 프로그램 제공	외국 어안 내	주변 자원 정보 제공	홍보 물 제공	커뮤니케이션 제공	홈페이지 연계	축제 정보 관리
논산시 6	논산딸기축제	○	○	×	○	×	○	○	○
	육군훈련소병영체험축제	×	×	×	×	×	×	×	×
	강경발효젓갈축제	○	○	×	○	×	×	×	×
	명품고구마축제	×	○	×	×	○	×	×	×
	연산대추축제	×	○	×	×	×	×	○	×
	양촌곶감축제	○	○	×	○	○	○	○	○
계룡시 2	계룡축제	×	○	×	○	×	×	×	×
	2010계룡세계군문화축제	×	○	×	○	×	○	○	×
금산군 3	비단고을산꽃축제	○	○	×	○	×	○	○	○
	금강민속축제	○	○	×	○	×	○	○	○
	금산인삼축제	○	○	○	○	○	○	○	○
연기군 3	제24회도원문화제	○	○	×	○	×	×	○	○
	제6회 왕의 물 축제	×	○	×	×	×	×	○	×
	제6회 조치원복숭아 축제	○	○	×	○	○	○	○	○
부여군 2	2010세계대백제전	○	○	○	○	○	○	○	○
	부여 서동.연꽃축제	×	○	○	○	×	×	○	○
서천군 4	제19회한산모시문화제	×	○	×	○	×	○	○	○
	제9회 동백꽃 주꾸미 축제	×	○	×	○	×	×	○	×
	자연산 광어도미축제	×	○	×	○	×	×	○	×
	홍원항 전어축제	×	○	×	○	×	×	○	×
청양군 3	칠갑산문화제	×	○	×	×	×	×	○	×
	칠갑산장승문화축제	×	○	×		×	×	○	×
	고추구기자축제	○	○	×	○	×	○	○	○
홍성군 5	제8회 남당새조개축제	×		×		×	×	×	×
	제15회 남당리대하축제	×	○	×	○	×	×	○	×
	제15회광천토굴새우젓 조선김반찬대축제	×	○	×	×	×	×	○	×
	홍성내포사랑큰축제	○	○	×	×	×	○	○	○
	제8회김좌진장군전승기념축제	○	○	×	○	×	×	○	○

주 : ○ 정비, △ 정비되어있으나 다소 미흡, × 정비 미비를 나타낸 것임. 2010년 기준으로 조사

시군명	축 제 명	정보제공					정보교환 및 의견수렴		관리 및 운영
		이전 축제 정보 제공	축제 프로그램 제공	외국 어안 내	주변 자원 정보 제공	홍보 물 제공	커뮤니케이션 제공	홈페이지 연계	축제 정보 관리
예산군 3	제37회 윤봉길문화축제	×	○	×	○	○	○	×	○
	제3회예산옛이야기축제	×	○	×	○	×	○	○	×
	제13회 예산사과축제	×	○	×	×	×	×	×	×
태안군 5	제2회 몽산포주꾸미추거제	×	○	×	×	×	○	×	○
	태안육쪽마늘요리축제	×	○	×	○	×	○	○	○
	제3회 어살문화축제	×	×	×	×	×	×	×	×
	제3회신진도꽃게축제	×	○	×	○	×	○	○	○
	제11회백사장 대하축제	×	○	×	×	×	×	○	×
당진군 6	제1회당진황토감자축제	×	○	×	×	×	×	○	×
	제14회당진쌀사랑음식축제	×	○	×	×	×	×	○	×
	제10회면천진달래축제	×	○	×	×	×	×	○	×
	제6회삽교호조개구이축제	×	○	×	×	×	×	○	×
	순성매화벚꽃축제	×	○	×	×	×	×	○	×
	상록문화제	×	○	×	×	×	×	○	×
	기지시줄다리기민속축제	×	○	○	○	×	○	○	×
	한진바지락축제	×	○	×	×	×	×	×	×
	왜목해돋이축제	×	○	×	○	×	○	○	×
	장고항살치축제	×	○	×	×	×	×	○	×

주 : ○ 정비, △ 정비되어있으나 다소 미흡, × 정비 미비를 나타낸 것임. 2010년 기준으로 조사

(2) 오프라인 홍보

오프라인 부분의 홍보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홍보시기 및 방법, 축제 홍보물 및 책자, 축제 FI (Festival Identity) 및 브랜드 구축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도 축제시작 2~3개월 전부터 홍보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방법으로는 인쇄홍보, 옥외홍보, 기타홍보와 같은 방법들이 포함되었다. 주로 축제홍보 제작물을 제작하는 업체 및 축제를 기획하는 이벤트 기획사에서 오프라인 홍보를 담당하고 있었다.

축제 홍보물은 축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고려하여 축제 정보를 전략적으로 담는 것이 중요하다. 축제의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일부 축제들은 FI(Festival Identity)를 구축하고 있었으며 문화관광축제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었다.



〈그림 3-1〉 금산인삼축제 FI(Festival Identity) 구축 현황

자료 : 금산인삼축제 홈페이지

3) 기획 및 홍보 지원의 문제점

(1) 축제기획 시 지역주민 및 다양한 축제 주체의 참여부족

현 지역축제 관련 조직의 구조는 대부분 관에서 주최하고 해당축제 축제추진위원회, 민간업체 또는 지방문화원이 축제를 주관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은 시군의 정책집행자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지역의 명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축제의 기획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개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지역축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 축제의 기획과정에서 지역축제에서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은 소외되거나 배제되고 축제전문가, 지역전문가 등의 다양한 축제주체의 의견반영이 미흡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축제홍보물에 콘텐츠 구성 및 특성 반영 미흡

축제 홍보방법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었으나 축제 규모별에 따른 홍보 예산 한계로 인해 홍보방법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비교적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는 문화관광축제의 경우는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었는데 휴대가 용이한 팜플렛 등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제 홍보물은 특색이 반영되지 못하고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역축제의 홍보물은 해당축제의 특성을 잘 표현해 내고, 정확한 정보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축제의 목표와 목적, 특성에 부합하는 브랜드 구축과 함께 축제 FI(Festival Identity)에 부합되는 축제 홍보물이 제작되어야 한다.

충남 지역축제의 경우는 축제 FI(Festival Identity) 즉, 축제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문화관광축제 등의 극히 일부축제에만 해당되었다. 대부분의 축제가 매년 다른 기획사를 선정하여 축제기획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전문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축제 특성을 홍보물에 구현하여 제작하는데 있어 한계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축제 DB 구축 및 정보관리 미비

축제홍보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한 축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제공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분석대상의 대부분 축제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는 있었으나 축제 홈페이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축제명칭, 축제기간 등이 잘못 게재되어 있거나 전년도 정보가 그대로 게재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 정확한 축제정보에 관한 업데이트 및 관리가 필요하다.

(4) 축제 특성 고려가 미흡한 홍보방법 및 시기의 문제

대부분의 축제가 축제홍보를 축제 개최 2~3개월 전에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축제 담당 공무원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다음 해의 축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1년 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홍보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프랑스 망똥카니발의 경우는 다음해에 개최될 계절별, 월별 프로그램을 1년 전부터 홍보책자 및 신문형태의 브로셔를 통해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이처럼 홍보시기에 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사전에 축제를 홍보하는 것이 축제를 널리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홍보의 대상에 있어서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등으로 축제홍보 활동을 펼치기보다는 충남이라는 지역에 국한되어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기도 이천에서 개최되는 도자기축제의 경우는 전문적 PR회사와 함께 홍보활동을 펼치며 인근에 위치한 에버랜드와 연계 홍보, 마스터카드사와 연계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었다. 충청남도도 축제의 특성과 성격, 축제에 참여하는 대상을 고려하여 홍보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전략적이고 다양한 축제홍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3. 예산

1) 시군별 예산 현황

충남의 지역축제 전체 예산은 47,172백만원으로 국비가 6,009백만원에 전체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가 12,743백만원으로 27.0%, 시군비가 26,190백만원으로 55.5%, 자부담이 2,231백만원으로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부담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도비 및 시군 예산에 의지하는 축제의 예산구조는 축제가 지향하는 바와 축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향성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다.

2010년의 경우 세계대백제전의 축제 예산 240억원에 의해 전체적으로 축제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예산이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는 천안시가 1,700백만원이고 시비가 85.6%로 가장 많았으며, 공주시는 12,383백만원으로 도비가 38.7%, 시비가 41.7%로 조사되었다. 보령시는 3,510백만원이고 아산시 1,970백만원에 72.1%가 시비였으며, 서산시는 1,855백만원에 시비가 85.4%였으며, 논산시도 1,210백만원 중 79.3%가 시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가 2,700백만원, 금산군이 2,080백만원이었으며, 연기군은 2,390백만원 중 군비가 97.1%, 자부담이 2.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여군이 12,767백만원, 서천군이 540백만원, 청양군이 150백만원, 홍성군이 570백만원, 예산군이 1,170백만원, 태안군이 640백만원, 당진군이 1,538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와 부여군이 상대적으로 축제 예산이 높았는데 이는 2010세계대백제전의 개최에 따른 원인이었으며, 가장 예산이 작은 곳은 청양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축제별 예산 현황

시군명	축 제 명	축제예산(지원액)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 담
천안시 2	천안흥타령축제	1,500	150	75	1,275	
	천안판페스티벌	200		20	180	
공주시 10	계룡산 도자기 축제	50			20	30
	계룡산 산신제	44		20	20	4
	마곡사 신록축제	50		20	25	5
	고마나루 축제	45			40	5
	공주 알밤축제	170	110		40	20
	허수아비 축제	10			10	
	공주시 우리밀축제	14			10	4
	2010세계대백제전	12,000	1500	4,750	5,000	750
	무창포주꾸미축제	5			5	
보령시 6	보령머드축제	3,200	800	1,200	1,200	
	대전해변통기타음악축제	180		90	90	
	무창포신비의바닷길축제	70		20	50	
	무창포해변예술제	5			5	
	무창포대하.전어축제	40	24		16	
	성주산단풍축제	5			5	
아산시 3	천북굴축제	5			5	
	아산성웅이순신축제	1,500		500	1,000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150		30	120	
서산시 7	온양온천문화예술제	320		20	300	
	간월도바다음식축제	50		7.5	27.5	15
	삼길포 우럭축제	80		7.5	27.5	45
	서산6쪽마늘축제	280			280	0
	서산6년근인삼축제	120		15	45	60
	천수만철새기행전	650			650	0
	서산해미읍성문화축제	600	50	30	520	0
논산시 6	팔봉산감자축제	75			35	40
	강경발효젓갈축제	200	100	50	50	
	병영체험축제	250			250	
	논산딸기축제	450			450	
	양촌곶감축제	120			90	30
	제2회상월명품고구마축제	70			40	30
계룡시 2	연산대추축제	120			80	40
	2010 계룡축제	200			200	
	2010계룡세계군문화축제	2,500	1300	400	800	

표 계속

시군명	축 제 명	축제예산(지원액) 단위 : 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 담
금산군 4	장동달맞이축제	20			20	
	비단고을산꽃축제	30			30	
	금강민속축제	30			30	
	금산인삼축제	2,000	300	150	1,550	
연기군 3	도원문화제	2,000			2,000	
	조치원복숭아축제	370			300	70
	금강변벚꽃축제	20			20	
부여군 2	2010세계대백제전	12,000	1,500	4,750	5,000	750
	부여서동연꽃축제	767		50	717	
서천군 4	동백꽃주꾸미축제	40		20	20	
	한산모시문화제	496	75	32.5	388.4	
	자연산광어,도미축제	2			1.8	
	홍원항전어축제	2			1.8	
청양군 3	제12회칠갑산장승문화축제	70		20	50	
	제15회칠갑문화제	80			80	
	고추구기자축제	0				
홍성군 5	2010.홍성내포축제	430		30	400	
	제8회홍성남당항새조개축제	30			30	
	제15회홍성남당항대하축제	30			30	
	제15회광천토굴새우젓재래맛김축제	30			30	
	제8회김좌진장군전승기념 축제	50			50	
예산군 3	제37회운봉길문화축제	200			200	0
	제3회예산옛이야기축제	750		50	700	0
	제13회예산황토사과축제	220	100		100	20
태안군 5	제4회육쪽마늘축제	450			400	50
	제2회몽산포주꾸미축제	50			30	20
	제3회신진도꽃게축제	50			30	20
	제11회백사장대하축제	50			30	20
	제3회어살문화축제	40		20	20	
	제1회당진황토감자축제	30			20	10
당진군 8	제14회당진쌀사랑음식축제	690		200	390	100
	제10회면천진달래 축제	60			30	30
	제6회삽교호조개구이축제	53		5	30	17.5
	순성매화벚꽃축제	40		20	20	
	상록문화제	140		20	80	40
	기지사줄다리기민속축제	505		120	380	5
	한진바지락축제	20			20	

〈표 3-7〉 축제별 예산 비율 현황

지역	소계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천안시	1,700	150	95	1,455	0
	100.0	8.8	5.6	85.6	0.0
공주시	12,383	1,610	4,790	5,165	818
	100.0	13.0	38.7	41.7	6.6
보령시	3,510	824	1,310	1,376	0
	100.0	23.5	37.3	39.2	0.0
아산시	1,970	0	550	1,420	0
	100.0	0	27.9	72.1	0
서산시	1,855	50	60	1,585	160
	100.0	2.7	3.2	85.4	8.6
논산시	1,210	100	50	960	100
	100.0	8.3	4.1	79.3	8.3
계룡시	2,700	1,300	400	1,000	0
	100.0	48.1	14.8	37.0	0.0
금산군	2,080	300	150	1,630	0
	100.0	14.4	7.2	78.4	0.0
연기군	2,390	0	0	2,320	70
	100.0	0	0	97.1	2.9
부여군	12,767	1,500	4,800	5,717	750
	100.0	11.7	37.6	44.8	5.9
서천군	540	75	53	412	0
	100.0	13.9	9.7	76.4	0.0
청양군	150	0	20	130	0
	100.0	0	13.3	86.7	0
홍성군	570	0	30	540	0
	100.0	0	5.3	94.7	0
예산군	1,170	100	50	1,000	20
	100.0	8.5	4.3	85.5	1.7
태안군	640	0	20	510	110
	100.0	0	3.1	79.7	17.2
당진군	1,538	0	365	970	203
	100.0	0	23.7	63.1	13.2
합 계	47,172	6,009	12,743	26,190	2,231
	100.0	12.7	27.0	55.5	4.7

2) 예산 지원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축제는 보령머드축제가 대표축제로 800백만원, 금산인삼축제가 최우수축제로 300백만원, 강경젓갈축제, 천안홍타령축제가 우수축제로 150백만원, 한산모시문화제가 유망축제로 70백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축제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축제는 3회까지 지원하고 최우수 축제 등은 등급별 3회, 총 7회까지만 지원하는 지원기간 한도를 도입하고 지원이 종료된 대표축제는 명예 대표축제로 간접 지원하기로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보령머드축제는 내년부터 예산 지원이 중지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된다.

충청남도(문화예술과)의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2010년에는 축제예산 중에서 각 시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축제 20개를 대상으로 3천만원 기준에서 예산을 지원하였다.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을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10세계대백제전의 경우 국비지원에 따라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였다.

예산지원 기준은 충남도청 문화예술과 이외의 관련부서 및 시군이 평상적으로 최초행사 개최 시에 소요예산 비용을 추정하고 내부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한다. 다음 개최되는 해의 축제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축제자체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충 또는 삭감하는 방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

축제에 대한 자체평가, 또는 일부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평가를 통한 축제예산의 차등지원은 하고 있지 않았으며 보통 도, 시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 내의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보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예산 지원체계의 문제점

(1) 예산지원의 지속성 결여

충청남도에서는 시군 축제에 대해 축제예산을 지원하다가 시의회의 예산 조정으로 예산지원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 지원마저 되고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기반시설의 확충, 축제프로그램 개발, 신규 사업 발굴, 전문 인력 확보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대부분의 축제예산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지원되기보다는 기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삭감하거나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매년 편성되는 예산으로 인해 축제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축제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공부분의 재정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축제의 위축, 축제의 질 제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기업, 민간단체, 다양한 시민주체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한 축제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시스템을 통한 축제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과 평가가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시군 축제에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예산지원 기준의 불명확

보통 축제 예산은 평상적으로 최초행사 개최 시에 소요예산 비용을 추정하고 내부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한다. 다음 해에 개최되는 축제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축제 자체평가 및 신규 사업 발굴,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충하거나 또는 삭감하는 방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의 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매해의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서 예산지원의 규모와 범위를 설정하고 있어 예산지원의 명확한 기준과 축제의 평가를 통한 축제별 예산지원의 차등화가 필요하다.

(3) 민간부분 투자 미비

해외 축제사례의 경우 수익과 관련된 상품 판매, 입장료 수익 등을 통한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가지거나 예산 구조의 일정비율 혹은 상당 비율이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의 스폰서쉽을 통하여 충당하고 있다. 수산물을 주제로 한 몇몇 축제에서는 민간부분의 자부담을 통한 예산확보 또는 민간단체 및 업체, 공공기관의 후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관의 예산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축제 예산구조는 축제의 프로그램, 성격, 축제의 전반적인 경영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민간부분의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위탁방식 및 민간이 주체가 되어 축제를 개최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입장료 징수, 축제 기금의 조성 등 축제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축제 수익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4. 조직

1) 지역축제 조직 현황

이현식(2004)은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축제의 자율성, 전문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안정적 재정확보모와 독자적인 조직구축이 현재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지방정부가 가장 고려해야 될 요인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문화산업과 등의 관광 및 문화와 관련된 부서와 수산물과 관련된 농수산물 등에서 축제 행정에 관한 전반을 지원하고 있었다. 각 부서들은 축제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업무, 축제홍보 및 협조요청 업무 등의 행정관련 업무에서부터 실질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업무까지 하는 등 각 행정부서의 역할과 업무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의 경우는 축제별로 해당주체와 관련한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 수산물 등의 부서에서 해당축제에 대한 행정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도비지원이 되는 축제의 경우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를 담당하지만 일부 주제와 관련되 실과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다. 각 시군의 경우도 대부분 문화관광 및 문화홍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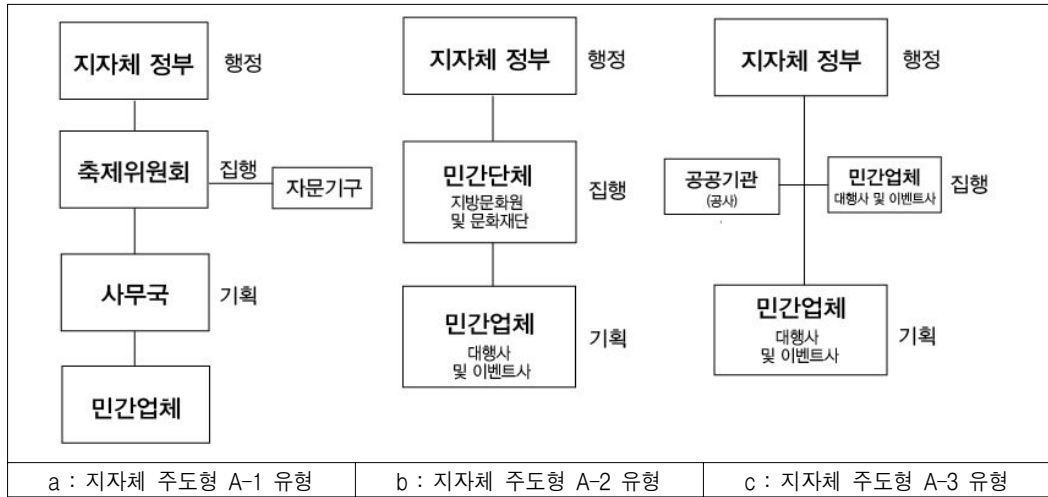
등에서 축제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수산물과 관련된 축제는 농수산물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이외에 민간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축제의 경우 각 해당 시군의 문화관광담당 부서에서 행정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었다. 2010세계대백제전은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단을 구성하여 축제의 컨셉 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 기획 등의 행사 전반에 대해서 주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충청남도의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 및 담당 공무원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축제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간의 소통이 없는 실정이었으며,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축제행정 담당자 및 전문가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축제의 추진 주최 및 주관에 따라서 지역축제 조직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정부 주도 하에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을 A유형,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주최가 되어 추진하는 지자체 정부+공공주도형을 B유형, 민간주도형을 C유형으로 분류하였다. A유형은 추진 주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축제전담기구인 축제조직위원회를 지자체 정부기관 산하에 배치하는 경우를 A-1유형, 문화재단 및 지방문화원 등과 같은 민간단체기관을 배치하는 경우를 A-2유형, 공공기관과 이벤트 회사 및 대행사와 같은 민간업체가 공동주관하는 경우를 A-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지자체 정부+공공주도형을 B유형과 민간주도형인 C유형의 주최자들은 모두 이벤트회사 및 대행사와 같은 민간업체가 해당되었으며 중앙정부, 자치정부, 공공기관, 지방문화원 및 문화재단과 같은 민간단체와 민간기업체 등의 후원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지역축제 조직 지원체계 유형별 현황

주 최	주 관	후 원
A 유형 지자체 정부	A-1 유형 전담조직기구 : 축제추진위원회	자치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지방문화원 및 문화재단, 협회 등) 민간업체
	A-2 유형 민간단체(지방문화원 및 문화재단)	
	A-3 유형 공동주관 : 공공+민간업체(대행사 등)	
B 유형 지자체 정부+공공기관	민간업체(이벤트 및 대행사)	
C 유형 민간업체	민간업체(이벤트 및 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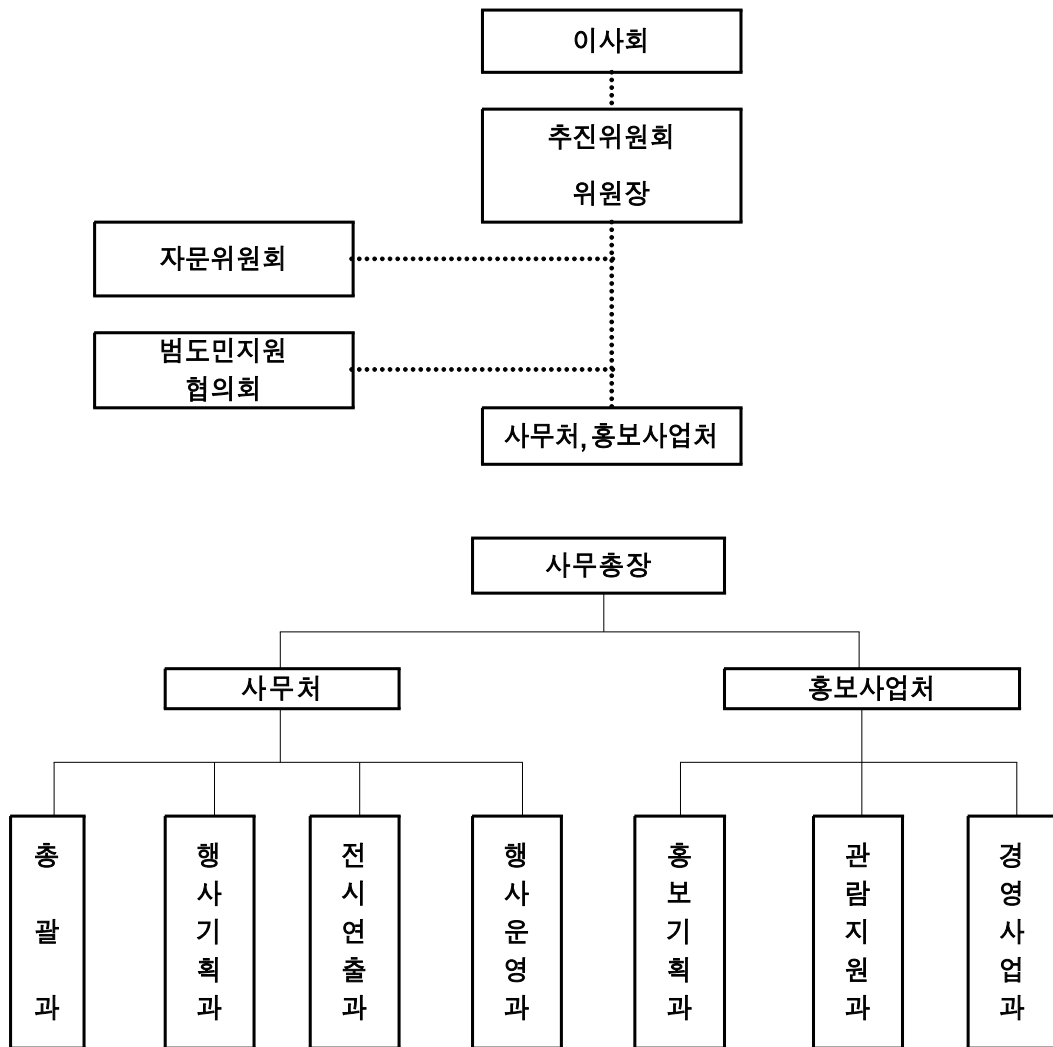


〈그림 3-2〉 지자체 정부주도형 추진주최 조직 유형(A 유형)

2) 축제 집행 및 기획부문 조직 현황

지역축제를 집행하는 주체는 충청남도 주최 축제의 경우 (재)00추진위원회, 각 시군의 경우 지역축제추진위원회를 설립한 경우는 해당 축제추진위원회 및 사무국이, 관련 전담기구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이벤트 기획사 및 대행사와 같은 민간업체가 담당하고 있었다.

(재)00추진위원회의 경우는 2010세계대백제전의 경우 이사회를 두고 자문위원회와 범도민지원협의회를 두고 1총장 2처 7과로 구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적인 축제기획의 업무는 민간업체를 통해서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3-3〉참조).



〈그림 3-3〉 2010세계대백제전 추진위원회 조직도

각 시군은 조례 제정에 따라 또는 각 축제의 집행 및 기획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축제관련 직·간접적 형태의 조직위원회(시군차원의 축제위원회, 해당 축제를 주관하는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 개최를 위한 집행 업무역할을 대부분 하고 있었으며, 사무국을 설치 운영 중인 지자체는 조직위원회를 통한 축제발전방향 제시, 프로그램 제안, 기타 축제에 관한 의결 등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축제위원회는 축제 시작 2~3개월 전에 축제와 관계된 축제전문가 및 해당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구성하여 축제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홍보 업무 등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추진위원회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 사무실을 갖추고 있더라도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아닌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대부분의 축제위원회는 상징적인 대표기구로 축제의 방향 설정, 다음년도 계획 수립, 자체 축제평가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으며, 축제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사무국 및 운영위원회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축제 기획 및 행사진행을 담당하는 민간업체를 공개입찰 또는 지정 선정하여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민간업체를 선정하거나 해당시군의 지방문화원을 통해 홍보, 기획 등의 업무를 하도록 외주를 주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이 추진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 축제전반에 대해 평가,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이서울 페스티벌을 기획·운영하는 등 축제사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충남 지자체의 조직위원회의 경우 축제를 후원하거나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축제평가에 참여하는 등 현재까지는 축제업무에 소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해당 시군의 지방문화원의 경우 축제를 주관하는 업무 즉, 행정 업무에서부터 축제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 등과 같은 축제기획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직접적으로 축제를 주관했던 문화원은 지역과 관계된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이들 문화원의 축제기획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3) 지역축제 조직체계의 문제점

(1) 축제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킹 부재

축제와 관련한 축제를 지원하는 행정부서와 축제를 담당하는 축제조직위원회, 지역축제를 주관했던 지방문화원과 같이 축제관련 부서 및 기구들 간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영준과 박대환(2008)은 축제지역의 구성원과 참여자, 공공의 네트워킹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지역자원 및 사회자본, 정보공유와 교환이 네트워킹화를 통해 상호 교환되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외의 연대화를 통해 다양한 공공기관, 축제관광 관련의 민간 또는 공공기관, 민간 등 축제조직을 구성하는 참여자들의 네트워킹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축제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부서간의 네트워킹화와 축제에 참가하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들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축제관련 정보의 공유와 함께 상호간 연계를 통한 축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축제조직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

충청남도에서는 축제기획 및 축제집행 등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축제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축제의 지원방식, 지원형태, 지원내용은 민간기관으로서의 독창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운영형태는 상징적인 기구로 대부분 임시자문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축제의 기획 및 운영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제 개최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사무실을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상근직 직원도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축제조직위원회의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축제조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정립이 필요하다.

5. 제도

1) 축제관련 제도 현황

현재 충청남도는 도 와 각 시군에서 지역축제 지원체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례들은 비슷한 내용과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었다. 축제 평가관련 항목, 평가결과 축제반영 여부, 평가 결과 자료공개여부, 고문 및 자문위원 위촉의 권한에 관한 조항들의 조례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조례에는 축제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축제명칭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축제 관련 조례의 목적은 축제의 활성화 및 지원의 원활화, 각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민의 문화육구 충족, 민간주도의 행사개최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축제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 선정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었다. 충청남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함<개정 2008. 7. 1>
 1. 문화·예술단체 대표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축제관련 임직원
 4.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 그 밖에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축제전문가와 지역주민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으며, 단체장과 기관장 중심의 형식적인 구성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다른 시군의 경우도 도청 또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위원으로 두는 것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향후 민관협력을 통한 축제가 확대 개최되더라도 관주도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제도 지원체계 문제점

(1) 각 시군의 획일화된 조례의 내용과 구성

각 시군의 축제 및 문화관련 조례들은 기존에 제정한 다른 축제 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축제 및 문화관련 조례들의 대부분은 축제관련 조직 위원회, 운영, 자문, 평가, 행사 경비 등의 예산관련 항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축제 조례 제정시 각 시군의 지역성이나 축제의 규모, 수, 특성에 따라 축제조직 위원회의 규모와 구성원을 달리해야 하나 현재 제정된 대부분의 축제 관련 조례는 비슷한 항목과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이다. 조례항목에 축제운영회, 사무국과 같은 실행을 위한 조직의 구성여부 및 기능과 역할, 평가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조례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축제와 관련된 조례는 각 자치단체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기초한 축제가 자생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2) 축제위원회 구성의 형식성과 주민참여 배제

대부분의 조례에서 축제위원회의 구성원과 위원의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 및 지역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구성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실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가와 축제의 주체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제3절 국내·외 지역축제 선진 지원 사례 검토

1. 지역축제 지원 선진사례 선정

하나의 지역 축제가 개최되기까지 여러 단계의 추진절차가 필요하고 단계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게 마련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 분야가 성공적인지 실패인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용이 하지 않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의 근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각 지원별 성공사례로 언급된 축제를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역축제의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국내·외 축제 지원 사례³⁾ 분석의 기준은 제2장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언급한 내용들을 중심⁴⁾으로 기획 및 홍보지원, 조직지원, 제도 지원, 예산 지원, 평가지원 측면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사례는 <표 3-9>과 같다.

3) 본 연구의 사례분석은 1차적으로 기존 선행연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 지원체계별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였음을 밝힘. 2차적으로 관련사례를 추가하여 이를 집중분석하는 형식을 취함.

4) 지역축제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지원요소들을 기획·홍보 측면, 조직적 측면, 제도적 측면, 예산, 평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지원요소별로 이와 부합되는 사례를 분석의 기준으로 제시함.

〈표 3-9〉 지역축제 지원체계 사례분석의 기준

지원	성공적인 축제 지원요소	집중 분석 사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 외부 평가 시스템의 존재여부 • 축제관련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간담회 개최여부 • 토론회 및 공청회 등 효과적 활용 여부 • 평가분석 자료의 사후 공유 정도 • 평가분석 자료의 적정성 • 사후프로그램 유무 및 지속성 정도 • 평가 자료의 활용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서울페스티벌 • 이천도자기 축제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 뉴질랜드 Wine and Food Festival
기획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매체의 다양성 활용도에 관한 지원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캐릭터, 기자간담회, 축제설명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춘천국제마임축제 • 광주김치축제 · 세계음식문화축제 • 금산인삼축제 • 이천도자기 • 프랑스 망똥카니발 • 일본 요사코이 축제 • 캐나다 몬트리올 재즈페스티벌 • 미국 텍사스 갤버스턴 • 미국 Taste of Chicago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구성비율(국비, 시비 구성 비율) • 예산구성의 자립도 • 축제의 비중에 비해 예산규모 • 축제예산 사용을 축제 담당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천 한마당 축제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영국 에든버러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사무국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 축제 담당자 간의 의사소통 • 축제조직위원 역할 • 관 · 민 지역사회, 문화 · 학술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 왕인문화축제 • 캐나다 국제 재즈 페스티벌,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 • 프랑스 망똥카니발 •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 인천부평풍물대축제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관련 법령,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자료 : 연구자 작성

2. 국내·외 지역축제 지원 사례 분석

1) 축제 평가 국·내외 사례

국내외 축제 평가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은 많지 않다. 국내 축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그 과정은 매우 주관적이며 실무에 관한 세세항목들만으로 구성되어 진다. 더군다나 명확한 평가지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래객수나 축제 진행에 관한 만족도 조사 등이 축제 평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축제의 유형별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축제별로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구성하며,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축제 발전을 위한 평가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축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평가의 목표와 평가단의 구성, 평가 원칙 및 평가범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⁵⁾

축제평가 관련 사례는 <표 3-10>과 같다. 축제의 진행 후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추후 장기적인 발전과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1) 다각적 평가체계

국내에서 진행되는 축제의 대부분은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통해 차후의 발전 방향에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서울의 하이 서울 페스티벌은 총 2차에 걸친 사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차 워크숍에서는 실제 축제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내부평가를 실시하는 형식이고, 2차 워크숍에서는 정식평가기관 및 담당자와 문화관광부 평가기관 그리고 자체평가 단체가 참석하여 외부평가의 일환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는 축제의 장기적인 비전 수립과 더불어 세부 프로그램의 설정을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5) 이무용(2005), “서울형 축제발전 및 체계적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전문가를 위촉한 축제 평가 실시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는 관내 축제 중에서 문화관광축제 후보를 중앙에 추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축제 평가위원회’를 열어 도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중 관광상품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축제만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전문가 위촉 축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축제의 기획·운영 전 과정을 민간전문가에 의한 종합적·심층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축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수, 관광관련 기관의 전문가 7명을 축제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지 방문 평가를 실시하여 축제별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결과 우수축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환류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를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전문가로 조직된 평가단을 통해 평가서를 작성, 이를 지원 규모와 연계하고 있다.

〈표 3-10〉 축제 평가 국내·외 사례

지 역		사 례	내 용
국 내	서울	하이서울 페스티벌	• 2차에 걸친 워크숍 실시하여 입체적인 축제평가 시행
		드림 페스티벌	• 외부평가를 통한 축제전반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 방안을 강구
	이천	도자기축제	• 사후평가과정으로 매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해 축제 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강원도	지역축제 평가위원회	• 전문가 위촉 축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축제의 기획·운영 전 과정을 민간전문가에 의한 종합적·심층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발전방안을 모색
	부산	부산문화관광 축제조직위원회	• 축제를 평가하는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전문가로 조직된 평가단을 통해 평가서를 작성, 이를 지원 규모와 연계
국 외	뉴질랜드	Wine and Food Festival	• 전람회 참가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고객에 대한 축제평가를 통해 전략적 계획을 지속 수립 • 전년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매년 새로운 개념 도입

주 :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2) 기획 · 홍보 지원 선진사례

기획 및 홍보 지원은 축제 개최 이전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수요조사와 욕구 조사를 통해, 축제의 내용을 구성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실시한다. 관련 사례들은 <표 3-11>와 같다.

(1) 긴밀한 협조관계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국내의 경우, 춘천국제마임축제의 홍보 계획은 공동 주최사인 춘천문화방송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 차별적인 홍보 방안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지역 언론사에 집중적인 홍보를 하고, 수도권 대상 중에서도 관광전문지에는 강촌과 연계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외의 일본 요사코이 축제의 경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상호관계와 지역신문의 지속적인 협조를 통한 관심을 야기하고, 전문가들은 방향 설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프랑스 망똥카니발의 경우 공문서와 공공건물에 축제 중심 주제인 오렌지와 레몬만을 이용하여 대형 전시 구조물을 만들고 퍼레이드 행렬 등 도시 전체가 축제 홍보의 장이 되도록 하기도 한다.

베네치아 카니발의 경우 홍보물 제작 신뢰성 있는 대사관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Taste of Chicago는 지역 호텔, 주요상인 식당들과 패키지 상품개발 및 광고를 하고,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전문적인 홍보 전략과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이끌어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새롭게 진행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저한 마케팅 분석을 통한 홍보

광주 김치축제와 세계음식문화축제는 각각 별도의 축제로 개최되던 행사기간의 조정을 통하여 동일한 목적의 방문자들에게 두 축제를 동시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관람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관람효과를 극대화했다. 이는 철저한 마케팅 분석을 통해 축제 내용을 구성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축제에 대한 홍보 효과를 배가 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축제 프로그램의 70%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뛰어난 마케팅 전략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텍사스 겔버스톤은 대대적 홍보 전략과 방문객들의 마케팅 조사 및 선호도 분석을 통해 적합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장기적 및 지속적인 홍보 활동

금산인삼축제를 축제에 대한 홍보 6개월 전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축제홍보를 통해 외국바이어들이 인삼제품을 수출하고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있다.

함평나비축제의 경우 중앙 및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은 물론, 지역외부 민간주체인 카드사, 여행사 등 후원기업 축제와 공동마케팅을 실시하고 있다.

(4) 홍보 전문성 강화

이천도자기 축제는 전문적 PR 회사를 통해 축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표 3-11〉 기획 및 홍보 지원체계 국내·외 사례

구분	지역	사례	구체적 내용
국내	함평	나비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및 중앙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전략 지역외부 민간주체인 카드사, 여행사 등 후원기업과 공동마케팅 실시
	금산	인삼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슬로건 홍보 강화 및 장기적 홍보 외국 바이어 축제 홍보를 통한 인삼제품 수출 기여
	이천	도자기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적 PR 회사를 통한 전폭적인 홍보 에버랜드와 연계한 국내 홍보 마스터 카드사와 연계한 해외 홍보
	춘천	국제마임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국과 연계한 긴밀한 관계 유지 지역 언론사 집중 홍보, 프로그램별 차별적인 홍보계획
	광주	김치·세계음식 문화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의 행사기간 조종을 통해 서비스 강화 및 관람 효과 극대화
국외	프랑스	망똥카니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문서와 공공건물에 레몬마크를 통해 ‘레몬도시’라는 망똥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알림
	일본	요사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상호관계와 지역신문의 지속적인 관심을 야기함
	캐나다	몬트리올국제 재즈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축제 후에도 온라인을 통해 의견 수렴과 새로운 기획, 지속적인 홍보 아이템 개발과 모니터링
	미국	텍사스 갤버스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대적 홍보 전략과 방문객들의 마케팅 조사, 선호도 분석을 통해 적합한 행사를 개최토록 함
		Taste of Chica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호텔, 주요상인 식당들과 패키지 상품개발 및 광고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의 적극적인 활용 스폰서 유치와 다양한 행사를 무료로 제공
	이탈리아	베니치아 카니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은 명시도의 홍보물 제작 및 신뢰성 있는 대사관을 통해 홍보

자료 : 연구자 작성

3) 예산 지원 선진사례

국내외의 축제 예산지원 정책 사례를 보면 축제를 관람하기 위한 입장료 수입과 관련된 상품 판매 등을 통한 안정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산 구조의 일정 비율 혹은 상당 비율이 민간 기업이나 단체와의 스폰서십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다. 이는 축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도 관련이 있으며, 다각화된 축제 재원으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도 가능하다.

이들 축제들은 축제의 예산과 예산의 확보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축제추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시와 과천시에서만 축제 조직 및 예산과 관련된 조례가 있을 뿐, 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조례가 부재하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 예산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과천 한마당 축제의 경우 조례를 통해 기금 조성을 위한 ‘한마당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이라는 예산지원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조례는 과천한마당축제의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과천한마당축제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하고 있다. 즉, 축제의 예산과 예산의 확보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축제추진주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 축제 수익의 다각화

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은 축제 운영의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축제추진주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이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예산의 약 74%를 자체 충당하고 있으며, 티켓 판매 외 후원금 행사중계료, 연주 홀 대관료, 협동업체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티켓판매는 4유로~340유로까지이며, 후원금 구성은 기업의 스폰서와 개인 후원자,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친구들’ 모임에는 후원회원과 정회원이 있고 각 연회비 900유로와 100유로이며 축제기간에 예술가들을 만나고 리허설과 워크숍에 초대되어 전시회 무료감사 및 입장권 구매 시 우선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3) 민간 기부 및 민간지원 확대

축제의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영국의 에든버러 페스티발은 우선 사업수입과 의존수입이 대략 7:3으로 이중 티켓판매 수입은 33%이며, 민간 기부 및 스폰서십은 28%로 외부지원 특히 민간의 기부와 스폰서십 등 민간지원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어 수입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나 일반서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요원까지 활용하여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회원제 운영으로 회원에게 회비모금 대신 과감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제도의 봉사활동과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크레올 크리스마스 축제의 경우 다양한 기부금, 물품기부 지원 받고 있으며, 식당, 호텔과 같이 축제 개최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체들의 재정적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표 3-12〉 축제 예산 지원 국내·외 사례

지역		사례	구체적 내용
국내	과천	한마당	• 기금 조성을 위한 ‘한마당축제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설치
국외	프랑스	아비뇽	• 지자체 예산부담으로 행정 관료가 축제를 주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경직성을 예술문화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상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 운영예산 : 총 941,551파운드(약 17억 8천 9백만원), 참가비, 광고비용, 스폰서십, 매표소수익, 기금, 판매수익, 투자액으로 조성(2001년 기준)
	일본	요사코이	• 철저한 민간주도의 축제로 2억5천만엔의 예산 중 95% 이상 민간에서 부담. 민간 중심 조직위원회는 참가비, 중계료, 입장료, 휘장사업으로 경비조달, 영리단체인(요사넷)을 통해 축제의 항구적 기반 조성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 예산의 74%를 자체총당, 티켓 판매 외 후원금, 행사 중계료, 대관료, 협동업체의 지원금으로 구성 • 후원금 구성은 기업의 스폰서와 개인후원자
	미국	지역행사	• 기업이나 일반서민들 대상으로 전문요원까지 활용하여 적극적인 모금 활동 전개, 회원제 운영하여 과감한 혜택부여 •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로 운영예산 절감 • 미국의 문화기관들이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운영예산에 사용
		크레올 크리스마스 축제	• 다양한 기부금, 물품기부 지원 받음 • 식당, 호텔과 같이 축제 개최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체들의 재정적 지원을 유도

자료 :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4) 조직 지원 선진사례

우리나라의 지역축제는 전반적으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추세가 강하다.⁶⁾ 하지만 축제의 양적팽창에 비하여 조직운영체계의 질적인 변화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무용(2005)은 조직 지원정책에서도 축제위원회의 민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임시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관의 의도를 대변하는 정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축제위원회의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한바 있다. 결국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조직 내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함으로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유지의 어려움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몇몇 국내 축제 협력조직은 하부에 여러 개의 전담 부서 및 전담팀을 구성하여 안정적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국내외 축제 조직 구성을 위한 지원정책 사례는 <표 3-13>, <표 3-14>와 같다.

(1) 축제조직위원회가 독자적 구성

부산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관리하는 축제 추진 주체이고 종합적인 축제 전담 민간 협력기구인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부실축제를 예방하고 축제에 대한 구조 조정을 담당하며 체계적인 축제기획과 운영을 담당할 행정기구나 부산의 축제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전문가로 구성되어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사에 대한 실행위원회 구성여부 심의, 실행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행사 추진, 수익사업 및 기타 필요한 업무를 기획 집행하고 있어 우리나라 축제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다.

축제조직위원회는 독자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기반조성, 축제 프로그램 기안 및 집행력을 전문화하며, 부산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6) 문화연대의 2004년 지역축제선수조사(총 771개 축제 대상)에 따르면 46.6%가 어떤 식이든 축제위원회를 통해 치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7) '축제조직위원회'는 지역 단위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기구를 뜻하는 것으로 여러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편의상 축제위원회로 통칭함.

있다. 부산광역시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유관기관 행정지원 사항 및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예산 확보를 위한 협찬 마케팅에 관해 협조를 하는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국제영화제 이외에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4개의 축제, 15개 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를 포함한 44개 축제에 대한 행정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의뢰하여 군·구 축제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문가로 조직된 평가단을 통해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원 규모와 연계시키고 있다.

경상남도 축제선정위원회는 지역 전통을 살리면서도 산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 위주로 활성화하여 시군별 대표축제 하나를 자체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축제조직위원회는 축제와 행사를 전담하는 마케팅 본부(국)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에는 문화예술계,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25명 안팎으로 축제위원회 구성하여 축제의 개최시기, 규모, 운영 방향 등 조정하고 자치 구도 참여하며 축제의 통폐합 및 신설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사전심의제 도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제육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산 지원을 신청한 축제를 대상으로 ‘사전심의제’를 실시하였다. 심의과정을 살펴보면 축제 소관부서 기초 심사 및 검토 의견, 축제 총괄부서 총괄 서류 심사, 최종 축제육성위원회 심의·확정 등의 세 단계를 거쳐 심의한다. 또한 심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축제 평가를 하여 사전에 계획한 대로 축제를 집행했는지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축제기획자 네트워크 구축, 통합 마케팅, 축제 아이디어뱅크화 등을 추진하는 등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주도의 다양한 축제를 관리하고자 한다.

〈표 3-13〉 지역별 축제조직위원회 사례

지역	명칭	내용
경상남도	축제선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로 대표축제에 한해 집중지원 • 지역 전통을 살리면서도 산업과도 연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 위주로 활성화
부산광역시	부산 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축제를 예방하고 축제에 대한 구조 조정을 담당하며 체계적인 축제기획과 운영을 담당할 행정기구나 부산의 축제를 관장 • 부산국제영화제 이외에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4종 축제 및 산하 15개 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 44종을 운영. 시 정 부는 지원과 평가만 담당
광주광역시	축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12월, 문화예술계, 축제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 25명 안팎으로 축제위원회 구성 • 축제의 개최시기, 규모, 운영 방향 등 조정 • 자치구도 참여하며 축제의 통폐합 및 신설 논의 • 축제의 달(10월) 지정, 모든 축제 집중 개최 • 광주의 특색있는 관광 상품 개발 • 축제와 행사를 전담하는 마케팅 본부(국) 운영
제주도	축제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9월 구성, 국내 처음 ‘축제 사전 심의제’ 도입 • 사전심의에서 축제 프로그램 차별성과 적절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심의축제기획자 네트워크 구축, 통합마케팅, 축제 아이디어뱅크화, 축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 • 조례제정 및 관내 28개 축제와 행사 중 프로그램이 비슷하거나 내용이 부실한 축제 대해 예산 집행 차등
춘천시	춘천 축제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갈비축제, 아트페스티벌, 인형극제, 마임축제, 막국수축제, 국제연극제 등 6개 축제 참여 • 공연예술축제와 특산물축제의 시기 조정 • 고음악 페스티벌, 아카펠라페스티벌, 아트페스티벌 국제 연극제 등이 네트워크 구성, 페스티벌 시티 춘천 등으로 공동마케팅 홍보

자료 : 정읍샘터포럼 발제문(2007.1), 축제위원회 어떻게 가야하나를 토대로 연구자 재작성

(3) 협의체 수준의 자발적 동의

춘천시의 ‘춘천축제네트워크’⁸⁾는 심의 조정 기구가 아니라 관내 6개 축제의 협의체 성격이 강하다. 예산의 인위적인 지원이나 분배보다는 서로의 독자적인 축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공연예술축제와 특산물축제로 나누어 개최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한 축제들은 인위적인 통·폐합보다는 고유한 영역 확보로 자연적인 상생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2006년 7~8월에 개최되는 고음악 페스티벌, 아카펠라페스티벌, 아트페스티벌, 국제연극제 등이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페스티벌 시티 춘천’으로 공동 마케팅과 홍보에 참여했다. 이는 ‘축제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장르의 축제는 물론 전혀 다른 성격의 축제들도 느슨한 협의체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바가 크다.

(4) 축제 전문 기획팀 구성

영암군의 왕인문화축제의 경우 축제전문가 수준의 국내 유일의 ‘축제기획팀’으로 구성되어 축제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으며, 글래스고우는 시 정부에서 축제 담당부서가 조직되어 축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축제위원회는 문화예술계·축제전문가·시민사회단체·관계공무원 등 25명 안팎으로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의 개최 시기·규모·운영 방향 조정, 축제의 통폐합 및 신설 논의, 축제의 달(10월)을 지정하여 주요 축제 집중 개최, 광주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 축제와 행사를 전담하는 마케팅 본부(국)운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축제의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시민 참여 체계의 틀을 갖추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캐나다 윈터크루의 경우 윈터크루 페스티벌 협회를 설립하였고 페스티벌 오프스프링의 경우 축제전문가들로 규정 스템을 채용하고 있다. 미국 Taste of Chicago 축제는 축제조직 체계가 다른 부서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마케팅 전문가, 재정담당자, 구매와 계약전문가, 스폰서 담당자들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다. 성루프린지페스티벌의 축제 기획 능력은 사무국의 점문기획자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축제를 이끌어 간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8) 춘천축제네트워크는 축제위원회 성격과 다를 수 있지만 대안 가능성으로 참고할 필요 있다고 판단되어 사례 내용에 포함시킴.

(5) 체계적인 민간 조직화

체계적인 민간 조직화로 이들 조직은 하부에 여러 개의 전담 부서 및 전담팀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함평군은 나비축제의 기획·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축제를 주관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에서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있지 못하다. 2006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서 군 관계자는 제외시켜 민간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프랑스 망똥카니발의 경우 망똥시의 관광사무국이 주관하고, 세부행사는 시의 각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조직되어 평가위원회에서 다음해 축제 개시일 5개월 전에 실질적인 행사 준비를 시작한다.

캐나다의 국제 재즈 페스티벌의 경우 비영리 단체의 조직기구를 통해 축제를 주관해 오고 있다. 니스카니발의 경우도 니스시 관광청 페스티벌 위원회의 정식 직원은 5명이지만 단독 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아비뇽 축제의 경우 임기제를 두어 축제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유도를 통해 축제의 관심을 증대시킴에 따라 지역의 공감대와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의 경우 비영리 단체인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이 축제를 주관하고 축제 조직의 최고기관은 행정위원회 아래 8개의 부서에서 축제를 집행하고 조직하고 있다. 영국 에든버러축제를 프린지소사이어티(The Festival Fringe Society)가 공동 홍보와 티켓 판매 프린지 참가 관련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6) 민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인천부평풍물대축제는 민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 주목할 만한 모범을 보이는 축제이다. 부평구청의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행정지원단’과 ‘운영국’은 축제의 실질적인 준비 주체인 ‘기획단’과 완벽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평구청은 축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지원하지만, 축제 준비는 추진위원회에 일임한다. 예산과 관련한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담당 공무원들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축제기간 동안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활동한다. 축제를 준비하는 지역 사회 구성

원의 연대는 축제공동체의 결속력과 통합 능력은 지속적인 축제 개최에 있어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천 도자기 축제 경우 주체인 이천시 및 공공기관과 이천도자기 조합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 재원의 30%를 이천 도자기 조합에서 분담하고 있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조직체계를 최고의결기구로서 추진위원회(42명)을 두고 그 아래 실무형, 전문형 집행위원회를 4개 분과 62명으로 선임하고 상설사무국(2명)을 운영하여 지역민들로 구성된 민간조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축제 발전을 위해 축제 회원 832명을 활용하고 있다.

〈표 3-14〉 축제 조직 국내 · 외 사례

지역		사례	구체적 내용
국내	함평	나비축제	•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 나가기 위해 2006년부터 위원회 구성에서 군 관계자 제외 시도
	영암	왕인문화축제	• 축제전문가 수준의 국내 유일의 ‘축제기획팀’을 구성하여 축제업무에 집중
	이천	도지가 축제	• 주체인 이천시 및 공공기관과 이천도자기 조합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음. 현재 축제 재원의 30%를 이천 도자기 조합에서 분담 • 행사장 안내와 통역 등의 업무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짐
국외	프랑스	망돕카니발	• 망돕시의 관광사무국(L' Office du Toulurisme de Menton) 주관 • 세부행사는 시의 각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 조직. 평가위원회에서 다음해 축제 개시일 5개월 전에 실질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
		아비뇽	• 축제 운영예술 감독의 임기가 보장되어 축제 운영능력이 뛰어남 • 자원봉사는 유급단기 고용직이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감대와 정체성을 형성
	영국	에든버러	• 프린지소사이어티(The Festival Fringe Society)가 공동 홍보와 티켓판매, 프린지 참가관련 행정지원 • 1992년 공적지원이 확대되면서 프린지 운영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를 추구
		글래스고우	• 1985년 민-관 합작기관인 ‘글래스고우 액션’설립 축제와 행사 진행 • 1987년 시 정부에서 축제 담당부서 조직 축제 활성화에 힘씀. 도시 관광 매력을 ‘글래스고우 액션’ 주변에 집중화

〈표 3-14〉 계속

지역		사례	구체적 내용
국 외	캐나다	윈터크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도권 위원회(NC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음 • 지역사회의 명물로서 페스티벌을 발전시키기 위해 1986년 NCC은 '윈터루트 페스티벌 협회' 설립
		페스티벌 오브 스프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4년~1986년까지 전문가들로 구성 정규스텝 채용 • 1986년 조직 재정비 혁신적 프로그램, 공격적 마케팅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 단체인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Festival ional de Jazz de Montreal)주관 • 축제 조직의 최고기구는 행정위원회(9인) • 행정위원회 아래 8개부서의 집행조직
	일본	요사코이 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위원회는 NPO이므로 영리사업 불가. 매년 축제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축제에 전액 투자를 원칙으로 함 • 조직위원회는 축제를 통해 브랜드파워를 확보하고 요사넷(비영리 단체)은 브랜드파워를 활용해 수익사업을 펼침 • 다양한 연력의 범세대성을 갖춘 연행 조직의 활성화와 운영이 자유로움 • 조직위원회는 사무국, 분과위원회 학생실행위원회, 지역지부로 구성
		삿쵸로 눈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에는 행정 주도형 시민축제로 각 업계에서 마스크업 상업교통, 숙박 등 각각의 역할 분담 • 10년 후 '눈 축제 실행위원회' 설치 운영조직 정돈 • 10회 때 자국 유명 여행사 초청 눈 축제를 상품화 관광 패키지 화를 통해 활성화 시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책임조직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재단으로 오스트리아 연방법에 의해 1950년에 공식 출범 • 조직은 대위원회, 지도위원회, 감독위원회로 구성
	미국	Taste of Chicag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부서들과의 협조 체계 • 마케팅전문가, 재정담당자, 구매와 계약전문가, 스폰서 담당자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자료 :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5) 제도 지원 선진사례

축제의 일관적인 운영에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지침으로 한다.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축제관련 조례는 <표 3-15>와 같다. 현재 많은 축제에서 축제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의 제도적 근거로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자치 법규를 제정한 경우는 드물다.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축제조례 지정

제주도는 개최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조례를 지정하였다. 축제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회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제주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우관기관장 5인, 문화·예술단체 대표 5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5인,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제주도지정 축제를 지정하고 그중에서 제주도 대표축제를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또한 도 지정 축제 및 도 대표축제에 대하여 등급별로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제주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공고를 통한 축제공모사업을 수행하며, 공모시기, 공모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공모에 따라 심의·의결한 축제에 대하여 축제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서는 익년의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 축제 정례화 및 축제사무 위탁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는 시민화합 및 여가문화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육성시책의 개발 및 추진, 축제의 정례화 및 그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축제행정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단오민속축제, 서울무형문화재종합축제, 서울드림페스티벌, 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또한 축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사업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표 3-15〉와 같이 국내 축제관련 조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축제 명을 명시하지 않고, 지원방식 자체도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축제 지원방식도 명확하지 않다. 축제평가 관련 항목 여부를 명시한 경우도 극히 드문 경우이다. 부산광역시와 과천시에만 축제 조직 및 예산과 관련된 조례가 있을 뿐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해당 조례가 부재하거나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표 3-15〉 제도 지원 사례

지역	사례	구체적 내용	
국내	서울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 시민화합 및 여가문화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육성시책의 개발·추진, 축제의 정례화 및 그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부산 영화영상진흥기금 설치 운영 조례	• 제4조(기금의 용도) – 부산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관련 사업에 기금 사용	
	광주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지원조례	• 독립조례(총 12조) – 목적, 협조 및 지원, 보조금 교부, 출자, 사유재산의 사용허가, 공무원 파견, 사업계서 제출, 잔여재산 귀속, 회장사용, 권한 위탁	
	경기	한마당 축제 육성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 독립조례(총 10조) – 목적, 기금조성 및 사용, 운용관리 및 계획, 기금결산
		도자기 축제 추진위원회 조례	• 독립조례(총 10조) – 목적, 위원회기능구성, 위원임기 및 임무해촉, 간사별도의 조례시행 규칙 제정(총 8조)
	강원	국제만화 축제 조직위원회 지원육성조례	• 독립조례(총 8조) – 목적, 설립운영, 추리연금지원, 공유재산대부, 공무원 파견 행정지원
	경남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지원조례	• 독립조례(총 11조) – 목적 협조 및 지원, 출자, 보조금교부, 사유재산사용허가, 공무원파견, 사업계획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잔여 재산귀속, 시설물 위탁관리
	전북	김제지평선축제조례	• 독립조례(총 5조) – 목적, 사업내용, 사업추진 위원회 설립, 기능
	전남	축제행사 수입사업 등 운영 및 관리조례	• 독립조례(총 19조) – 목적, 관람료 및 주차료, 시설대부, 광고료, 수익사업, 상표사용, 환경유지 및 보수명령, 수익금배분, 별도의 시행규칙 제정(총 11조)

자료 :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제4절 종합분석 및 시사점 도출

우리나라 지역축제 지원정책사례와 해외 주요도시의 지원정책 사례를 통해 지역 축제 지원체계와 관련하여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평가 지원 측면

첫째, 축제 평가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 축제 담당자들의 자체적 내부평가, 정식평가기관 및 담당자의 외부평가 등 평가방법과 평가대상, 평가 시기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 결과가 지원방안과 연계되어야 한다. 관광 중심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 규모 및 방법과 연계하여야 한다.

2) 기획·홍보 지원 측면

첫째, 지역 주민, 중앙 및 지역 언론사,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스폰서 유치, 대중매체, 기관의 협조를 통해 축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상호관계를 이끌어 내어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새롭게 진행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철저한 마케팅 분석을 통한 홍보방법 및 대상을 설정한다. 축제에 참여하는 표적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선호도 분석을 통해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축제 개최 전 뿐만 아니라 축제 후에도 축제로부터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매체의 활용을 다양화하고 사후 관리에도 집중하도록 해

야한다.

넷째, 홍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축제 조직 내에 자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거나 전문적 홍보회사를 통해 전문적인 홍보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예산 지원 측면

첫째, 축제 예산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축제추진 주체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둘째, 민간의 기부와 스폰서십 등 민간지원에 보다 많이 의존하고 있어 수입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조직 지원 측면

첫째, 실제 축제 운영을 담당하고 체계적인 축제를 기획할 축제 전담기구 신설 및 기존 축제조직위원회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둘째, 사전심의제 도입 등 추진위원회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제안이 필요하다.

셋째, 축제조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협의체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축제전문가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축제 전문기획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민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행정지원, 운영국 등 실질적인 추진 주체와의 완벽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각각의 역할 분담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5) 제도적 지원 측면

축제조례 제정 및 재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많은 도시에서 축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시도 및 자치단체에서는 축제 관련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재정비하고 조례가 없는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및 평가 지원 등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표 3-16〉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구 분	시사점	지원 방향
기획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밀한 협조관계 및 홍보방법의 다양화 • 철저한 마케팅 분석을 통한 홍보 방식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필요 • 홍보의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축제전용 홍보 공간 및 홍보 방법 다양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 • 축제전문기획팀 구성 • 체계적인 민간 조직화 • 민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중심의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및 축제 전문 인력 지원이 요구됨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조례 제정 • 축제정례화 및 축제사무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발전조례(가칭)를 제정하여 지원 대상, 지역축제의 범위, 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축제 개최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질적 수준을 고양하며, 점차 유료 입장 방안을 창출하도록 노력 필요 • 축제의 예산을 소모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매년 적립하여 기금 조성 • 정부가 지원하기보다는 후원사를 활용하거나 지역의 관련 업체의 기부를 받는 형식으로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운영비 지원 및 축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필요 • 축제기금 조성 및 민간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각적인 차원에서 평가 수행 • 축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자체 모니터링 전문가,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축제컨설팅 시스템 지원이 요구됨

주 :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 작성

제4장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제1절 기본방향

지역축제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시각이 있긴 하지만 지역축제는 근본적으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의 총체로서 지역의 이미지 창출 및 교류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또한 축제의 수혜자는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재 충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는 다분히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충남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이란 무엇이며, 왜 지역축제를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가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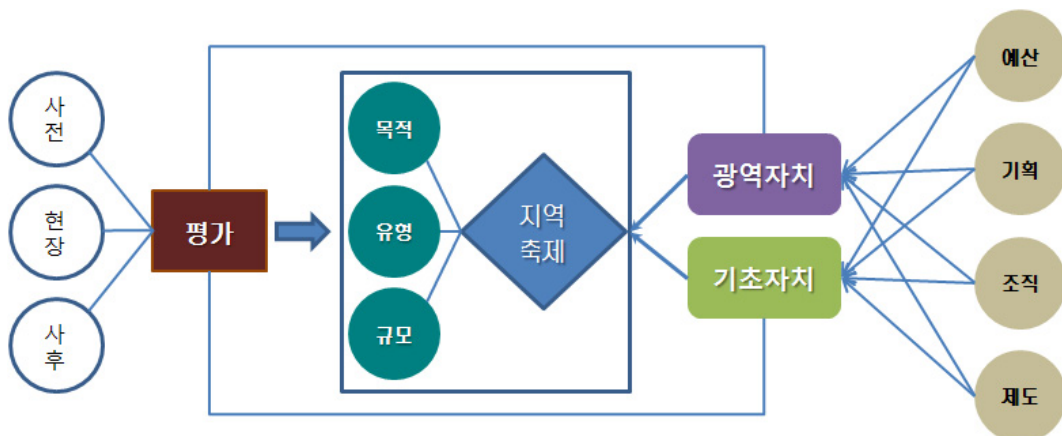
앞서도 언급했듯이 지원이라는 개념은 지지하여 돕는다는 의미로 사회적 필요나 편익차원에서 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존치를 위해 행하는 정책을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원의 개념은 보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관리하는 차원까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원은 막연한 혜택이나 수혜의 측면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지원은 발전을 위한 투자이자, 유도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도삼 외, 2003).

앞서 살펴본 바와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축제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지원의 전략과 방법에 대한 것이다. 아무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구체적인 목표와 방향이 없을 경우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적 차원에서 충남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군 차원에서 개별 지역축제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려는 노력을 수행하는 한편, 충남도 차원에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개별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과 조정 등을 위한 축제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축제 지원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지역축제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지역축제의 지원은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하며, 지원을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의 근거와 전제로서 축제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축제의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축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의 도입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지역축제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예산지원 중심의 재정 지원과 함께 기획 및 홍보에 대한 지원, 간접적인 행정지원 등 지원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추진주체들의 확실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을 개선하고, 축제 운영에 대한 노하우 축적으로 축제 운영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제도적 장치로서 축제 관련 조례의 개·제정을 통해 축제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및 조직 구성의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원체계의 기본방향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지원 방안을 구분하고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해야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그림 4-1〉 지원체계 모형

제2절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

1.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축제 평가

1)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충남 지역축제의 평가대상은 충남도에서 도비를 지원받거나 시군의 예산이 지원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예산 및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순수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산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는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충남 지역축제 평가는 향후 축제상설전담기구가 조직되기 전에는 충남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축제 전문가에 의한 축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축제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축제평가를 위한 축제평가단 조직을 구성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구성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통해 축제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의 평가는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될 필요가 있는데, 어느 한 시각에서의 축제 평가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왜곡된 평가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축제 유형의 다양성이나 지역축제의 중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개별 축제, 또는 개별 축제를 범주화한 유형별 축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세분화된 평가 기준과 지표에 기초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축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평가의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도 축제의 준비 과정부터 실행 과정 그리고 축제 이후의 사후 영향에 이르기까지 축제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지역축제 평가시스템을 실시해야 한다. 축제실행계획서를 평가하는 사전평가, 축제 개최 시 축제전문가, 방문객, 지역주민, 상인 등의 현장 평가, 축제 개최 이후 운영결과보고서(축제담당자 자체평가 포함)를 평가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전, 현장, 사후평가를 종합하여 모든 축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종합적인 평가와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 과정인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지역축제 평가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있어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이 조화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계량적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분석의 피상성, 그리고 정성적 분석에서 나타나는 평가의 주관성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자가 서로 평가결과를 보완하고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접근방법을 조합한 다면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 개최의 목적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평가항목

축제 평가에 있어 판단을 위한 기준인 평가항목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관광축제 평가기법으로서 방문객 대상 축제별 설문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참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축제별 설문조사의 경우 축제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동설문항목 총 30개 항목(방문객 만족도 18개, 방문객의 소비지출 6개, 방문객의 인구통계적 사항 6개)에 대해 축제 기간에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참관평가의 경우 참관평가단을 구성(민간 전문가 15명 + 문화부 15명)하여 각 축제별로 축제 민간전문가(2인 1조)와 문화체육관광부(1인)가 각각 현장을 참관 평가하고 있다.

문화연대에서는 축제평가 기준을 축제기획, 축제준비과정, 축제시행과정, 축제인지도 사후영향으로 4가지 관점에서 축제를 평가하고 있다. 축제기획은 기획취지, 목적, 컨셉의 적합성과 일관성이 포함된다. 문화관광연구원 축제평가항목은 성과관점(축제의 영향력 및 성과, 경제적 성과, 방문객 만족도), 내부 프로세스 관점(축제 기획, 축제 예산, 축제 조직, 축제 홍보, 지역주민 참여), 성장관점(축제사무국의 상설화, 학습수준, 평가시스템)으로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의 축제평가항목은 기획분야(축제기획의 완결성, 차별성, 개최시기 및 기간의 적절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프로그램 구성, 체험 프로그램 구성, 지역주민 참여시스템, 축제 조직체계의 적합성), 행사장 시설 및 운영분야(축제장소 접근성, 주무대와 시설물 운영, 행사안내 수준, 주차관리 및 안전관리 수준, 환경관리 수준, 편의시설 수준, 축제 진행 및 운영의 효율성, 축제 프로그램의 완성도, 참여자 반응), 관광상품화 전략 분야(축제 홍보 수준, 행사장 주변상권의 참여도, 축제 관련 쇼핑 및 음식 개발, 주변 관광지 및 숙박업소 홍보, 축제의 사후 영향

평가, 지역축제 관광상품화 의지), 프로그램 평가 및 종합의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위원회의 축제 평가는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량적 평가는 방문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지역특성화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전통·문화축제, 생태자연축제로 축제 유형을 구분하여 축제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공통 평가항목은 크게 운영 프로그램과 서비스품질 및 행사 진행 전반에 대한 평가항목으로 나뉜다. 운영 프로그램 부분의 평가항목은 운영조직 및 프로그램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품질 및 행사 진행 전반에 대한 부분은 음식, 쇼핑, 홍보, 안내, 편의시설, 공간 및 진행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 평가항목, 문화연대 평가항목, 부산광역시 축제평가항목,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축제조사 평가항목 등을 참고하여 충남의 지역축제 평가 항목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충남 지역축제 평가항목의 구성에 대해서는 향후 충남문화재단에서 축제평가를 시행하게 될 때 축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대한 조사와 연구 및 심층적 논의를 통해 평가항목을 최종 선정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은 전문가에 의한 참관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 평가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방문객 설문조사에 의한 정량적 평가항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통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각 축제의 특성에 맞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평가항목을 선정하여야 한다.

〈표 4-1〉 충남 지역축제 평가항목 예시

구 분	항 목
축제 사전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준비기간의 충분성 • 축제기간 확정 여부 • 연중 홈페이지 운영 여부 • 축제 전문가의 참여 여부
축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의 목적 및 컨셉과 프로그램 일치성 • 축제기획의 전문성 • 축제 소재 및 주제의 독창성과 참신성 • 지역자원의 활용과 연계정도 • 축제기획 참여자들 간의 의사결정과정의 원활성
축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 홍보물 내용과 구성의 효율성 • 축제 홍보기간의 적절성 • 홍보매체의 다양성 • 축제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 • 축제정보의 업데이트 및 관리 운영 정도
축제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예산 규모 및 구성비의 적절성 •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과 적절성 • 예산집행의 자율성 • 자체 예산확보 노력 • 민간의 재정후원 정도
축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운영 및 진행인력의 사전교육 정도 • 축제운영 및 진행의 원활성 • 축제행사 운영 및 진행의 정시성 • 축제관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시스템 원활성
지역주민 참여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참여시스템 여부 • 지역주민의 인지도 및 참여도 • 지역주민 참여의 자발성
축제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제조직위의 민주성 정도 • 축제사무국의 민간전문가 참여도 • 축제추진위 활동의 실질성 • 축제 담당자간 커뮤니케이션 원활성 • 지자체의 행정지원 정도 • 유관 기관·단체의 협조 및 참여 정도
축제의 영향력 및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이미지 향상 • 지역문화 인프라 확대 및 발전에 미친 영향 • 경제적 파급효과 • 외부 관광객 방문 • 방문객 만족도
축제평가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평가시스템 존재 여부 • 외부 평가시스템 존재 여부 • 축제관련 간담회, 토론회 개최여부 • 축제평가 자료의 사후 공유 정도 • 평가자료의 사후 활용정도

3) 평가결과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충남 지역축제의 평가결과를 통한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은 우선 평가점수를 등급화하는 방법이 있다. 평가결과 A등급(우수축제) 축제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축제로 선정하여 예산(30% 상향조정 등)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B등급(유망축제) 축제의 경우에는 현행 지원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C등급(예비축제)의 경우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평가결과를 점수화하여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항목별, 평가주체별로 구분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가 높은 축제를 선정하여 분야별 차등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른 방법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축제들이 해당 분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축제프로그램 분야, 시설분야, 마케팅분야, 지역문화발전 등을 선정하고 각 지자체에서 분야를 지원하는 형식을 통해 지원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개별 축제에 대한 평가 후 평가분석 결과를 해당 지역축제조직위 및 시군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피드백 시스템의 확립이 필요하며, 축제의 평가에 치중한 것에서 벗어나 평가와 더불어 평가결과에 따른 축제컨설팅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별축제에 대해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축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평가결과를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2. 충남 지역축제의 기획 및 홍보 지원전략

충남의 지역축제를 알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축제 개최 6개월 전부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기획 및 홍보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 방문객들이 미리 내용을 숙지하고 지역축제에 참여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때 축제를 보다 잘 즐길 수 있을 것이며,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 축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축제 마케팅의 활성화와 개별 축제에 대한 충분한 정보전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축제 마케팅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1) On-line 및 홍보물 전략

충남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마케팅 수단으로서 충남축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충남도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시군의 문화관광 홈페이지, 개별축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만, 정보제공의 수준 및 정확성, 업데이트 및 관리, 연계체계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충남에서 주최하는 축제, 시군에서 주최하고 있는 축제 및 민간개최 축제 등 충남 지역축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관련 정보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충남 지역축제의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충남축제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홈페이지는 사진자료, 음악자료, 동영상 자료 등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하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콘텐츠 및 홈페이지의 업데이트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 홍보 및 정보제공의 통로로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산업의 발달에 따라 주요 이용객층이 스마트폰 등의 첨단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첨단 정보통신과 소셜미디어(Social Media : 블로그,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을 활용한 양방향 홍보가 가능한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충남축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축제 홍보물로서 충남 지역축제 자료집 및 축제 캘린더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을에 서울시 및 구에서 개최되는 72개 축제의 정보를 자료집과 포스터, 캘린더 등으

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축제 자료집에는 일정표, 지도, 축제 유형별 소개, 축제 즐기기, 각종 안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년 전체 축제자료집 및 축제캘린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축제별 일정 및 개별 프로그램이 확저오디어야 하므로 개별축제 기획이 사전에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매월 충남 축제 캘린더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업데이트된 축제 정보를 제공하고, 축제 이미지 포스터, 축제 캘린더 등을 시군 별로 공동 제작하여 시군의 축제 홍보예산 절감 및 축제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Off-line 전략

충청남도, 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의 공동 홍보방안의 하나로 충남축제 홍보부스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하이 서울 페스티벌 2008 가을’ 축제 개최 시 서울광장 앞에 서울광장 축제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하이 서울 페스티벌의 다양한 정보제공 및 축제의 홍보효과를 제고한 사례가 있는데, 충청남도도 충남축제를 알릴 수 있는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축제 홍보부스 자체를 외형적으로 특색있게 만들어 그 자체가 충남을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로서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축제가 개최되기 전에 서울광장 등에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충남의 지역축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히 지역의 대표축제의 행사 홍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홍보의 수단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지하철 홍보판을 활용하여 충남 축제를 알리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충남 지역축제의 개최 및 운영과 관련한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다양한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대표 축제를 선정하여 해당 축제의 사전계획단계에서부터 축제 개최의 전 과정에 걸쳐 충남 지역축제 영상모니터링 자료를 제작하여 홍보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록물은 축제 평가 시 영상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충남 지역축제 DB구축 사업

충남 지역축제 발전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으로서 축제조직 및 인력 간 원활한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DB 구축 사업이 필요한데, 축제 DB 구축 사업의 목적은 다양한 충남의 축제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수요자에게 서비스하고자 하는 것이다. 충남 지역축제 DB의 주요내용은 충남 지역축제 관련 현황정보, 축제 관련 인력 DB(관련 전문가 등), 축제 참여 사업체(이벤트, 기획사 등) 및 축제 정책 지원인력, 국내·외 우수 축제 사례 등이 DB 내용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자들이 한곳의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충남 축제홈페이지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기존에 산재한 축제 관련 정보의 취합과 연계를 통해 편의성을 제공하며, 축제의 투명성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충남 지역축제의 기획에서부터 예산편성,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축제 실무자, 기획자, 관련 공무원이 모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축제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실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충남 축제전문가 양성

지역축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축제를 체계적으로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전국의 다양한 축제의 성공 및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충남 지역축제의 현황 진단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실제 축제 기획 및 운영자,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간의 지식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을 통해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축제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인터뷰 결과에서도 외부전문가의 자문과 참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충남지역의 축제 전문인력 양성은 시급한 부분이라 하겠다.

지역축제의 주체인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역축제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하며, 자생력을 가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축제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을 참여시켜 축제 전반에 대한 정보 및 주체로서의 역할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축제가 개최되기 전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해 단순히 질서유지, 안내 등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축제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 평가 및 사후 피드백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축제의 주인으로서 실제 행사에 참여하여 지역축제 안내해설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충남도 또는 시군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문화원의 교육프로그램 및 지역 내 자원봉사 시스템과 연계, 충남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표 4-2〉 충남축제 아카데미 프로그램 예시

회 차	세 부 내 용
[강의1. 축제 기획·제작·운영]	축제의 기획·제작 단계별 구성요소와 운영
[강의2. 축제의 유형과 경향]	우리나라 지역축제의 현황, 전망과 평가의 흐름
[강의3. 축제예산 수립과 운영체계]	효율적인 축제예산 편성과 집행 시 고려할 요소
[강의4. 축제운영 및 관리]	축제운영 및 관리 실무
[강의5. 기획서 작성 실제]	좋은 축제기획서의 요건과 기획서 작성 실제
[기획세미나1. 프로그램 개발]	축제 정체성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방향과 구성에 대한 사례분석
[기획세미나2. 축제 홍보마케팅]	지역관교아을 위한 축제의 홍보·마케팅 방안 사례분석
[현장실습, 성공축제 벤치마킹]	국내 지역축제 중 분야별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실습

자료 :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2008), 2007년도 부산지역축제 평가보고서를 참고로 연구자 재작성

3. 축제 예산 확보를 통한 축제의 자립화

1)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

기존의 충남 축제와 관련한 지원방향은 예산지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충남 지역축제의 발전기반 및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지원 외에 간접적인 행정지원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원의 가장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다. 그러나 축제에 대한 사업비 지원정책으로 모든 축제들이 예산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도의회 예산조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 축제 자체가 개최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그 단적인 예이다. 지원은 단순히 보조하는 역할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즉, 예산지원의 방법 또한 단순히 축제 자체의 개최를 위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축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축제에 대한 분배형 예산 지원 방식은 지원을 위한 지원으로서의 한계를 가진다. 지역축제를 통한 다양한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그 성과를 지역축제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방식의 다원화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축제의 초기 수준에서는 지자체의 지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점차 민간 수준으로 자체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역축제의 예산 지원과 관련한 정책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행정법상 재정 문제와 예산회계법상 문제로 나눌 수 있다(이무용, 2005).

첫째, 지방정부가 지역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세 수입 증대를 기하여야 하나, 축제 참가자의 소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인들의 소득증대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등 축제와 관련한 세수가 전부 국가 수입이 되고, 지역축제의 주최자인 지방정부는 쓰레기 처리부담, 교통 혼잡, 시설설치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되는 모순적 구조로 축제이익이 지역에 환류되는 구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예산회계법상 ‘예산단년도’ 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다음 연도

축제 예산의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축제 기획의 어려움이 상존하여 지역축제에 투자하기가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축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 2년 단위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축제의 지속성과 연속성의 확보를 통한 안정적 개최 및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 스폰서십, 축제자체 수익 증대방안 등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나 기업체 및 민간조직의 스폰서십 형성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다.

지역축제가 안정적으로 개최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축제예산이며, 자생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충남의 문화예술 관련 예산 증액을 통한 축제 전체 예산 배정 확대가 필요한데, 지역축제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충남에서도 축제 예산 배정 확대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향후 개별축제에 대한 예산 지원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행정기관에서는 최소한의 관리 감독 기능만을 수행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충남축제발전기금 조성

충남 지역축제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서는 충남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충남축제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남 및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는 대부분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에 의해 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축제의 수익금은 적을 수 밖에 없으므로 축제의 수익금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수익사업(입장권 판매, 광고, 영업시설사업 등)의 발굴을 통해 수익금을 확보하고 이를 축제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축제발전기금의 사례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이 축제는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자리 잡아 예술적인면 못지않게 경

제적으로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다. 1920년 이후 콘서트(1921년), 오페라(1922년) 등이 축제 프로그램에 추가됐고, 1927년부터 3년간의 공사를 거쳐 현재의 극장 건물이 완공되면서 종합 페스티벌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이후 정부는 모차르트의 탄생지로서 문화예술의 중심지 잘츠부르크가 갖는 상징성 등을 홍보로 활용했고, 페스티벌 펀드 등 관계 법령의 제정(1950년)을 통한 재정적 지원 등이 결합하면서 당대의 유명 예술인들도 즐겨 찾는 세계적인 문화행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모차르트의 도시’라는 역사·문화적 배경 외에도 훌륭한 자산을 히트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정부 당국의 지속적 투자가 함께 하고 있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의 총예산은 5천만 유로로 그중 74%는 티켓판매 및 부대사업 등 자체수입으로, 26%는 연방정부(40%)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주정부, 시정부 각각 20%, 잘츠부르크 관광진흥기금 20%)으로 충당하고 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는 축제의 하나이다. 이 후원금은 축제예산의 14%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는 개인 기부금, 기업의 협찬금, ‘축제의 친구들’이 내는 후원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후원하기 위한 단체인 ‘페스티벌의 친구들’이라는 협회는 1961년 결성되어 정회원과 후원회원들의 후원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들 정회원과 후원회원들에게는 입장권 구매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충남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잘츠부르크의 사례처럼 축제 후원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축제발전기금의 조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축제장소의 마련과 축제입장료 부과 방안

지역축제에 있어 축제공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충남 지역축제에 있어 축제장소의 부족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많은 축제들이 축제 장소를 옮기면서 개최하고 있고 행사 규모에 비해 장소가 비좁거나 축제 공간이 분산되어 축제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도 있는 등 많은 축제들이 축제 장소문제로 매년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뛰어난 ‘축제 콘텐츠’와 함께 매력적인 ‘축제 공간’은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축제들을 본다면 매력적인 ‘축제

공간'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 축제운영에서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슴도치섬이 춘천마임축제를 대표하는 장소가 되었듯이 축제를 떠올릴 때 개최시기와 함께 축제장소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한다. 충남의 지역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공간은 축제가 개최될 때에는 축제공간으로서 활용하도록 하고, 평소에는 축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축제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충남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축제가 도비 및 시군예산으로 개최·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축제 예산의 자립화가 어려운 실정인 것은 앞서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축제 예산의 부족은 다시 축제프로그램의 부실화로 이어져 전체 축제의 퀄리티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축제 예산 확보의 다양한 방법 중 자체적인 해결방안으로 축제의 입장료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내외의 성공한 축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입장료 수입을 통해 축제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다시 축제 프로그램의 내실화로 이어지게 하는 선순환 구조의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축제를 무료화한다고해서 축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2010 세계대백제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축제의 프로그램이 경쟁력을 가지면 축제 방문객들은 충분히 지불의사가 있는 것이다. 전체 축제의 입장료 부과뿐만 아니라 개별 축제 내 단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축제 입장료 부과의 전제조건은 해당 축제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고급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장료 방식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티켓 발매 형태의 경우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야 함으로 지역축제 기념품의 판매 등의 방안 도입도 필요하다.

4. 조직 지원제도 마련

축제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의 핵심에는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축제의 조직 운영 주체는 대개는 편의상 크게 민/관 주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관주도형 축제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축제에 있어서도 관의 직·간접적인 개입이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축제위원회를 만들어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충남의 경우에도 민관이 협력하여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관주도형 축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전환하여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축제조직위’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상당수의 축제가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행정적인 개입은 불가피하며, 축제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한다면 축제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축제조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다.

축제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축제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실제 지역축제의 운영에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 제도 등 다양한 측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역할과 기능 및 효과에 대한 검토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 관련 조직의 구성이 필수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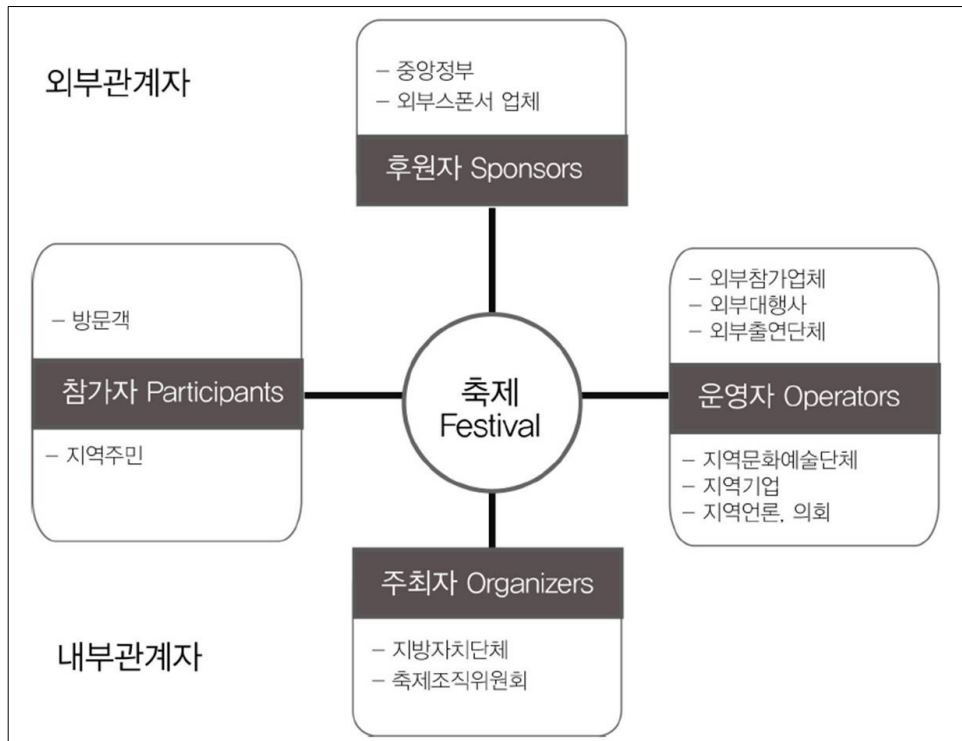
지역축제의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참여주체의 문제이다. 지자체 장이나 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지원조직이 아니라, 지역축제의 성공을 위한 열정을 가진 전문가 및 지역주민 중심의 생산적인 지원조직으로서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 충남 축제네트워크 구축

충남의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킹이 구축되어야 한다. 축제 담당자간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축제전문가 그룹과 실제 축제기획자와 실무자 간의 원활한 소통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의 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축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축제는 민간 전문 인력의 적극적 참여와 관의 열린 자세로의 지원 및 지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협조 체제 구축이 지역축제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축제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소통의 통로와 상호간 경험과 정보가 공유 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축제 관련 담당공무원 및 축제조직위원회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지역축제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하게 구성되고 이들의 요구와 역할이 다양하므로 이들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한 것이다. 이 축제네트워크는 도·시·군간, 시·군간, 민간-관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포함하는 구조이어야 할 것이다. 충남의 축제네트워크 구축의 중심에는 충남의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관련 사업을 추진할 충남문화재단을 충남지역 축제관련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남축제 네트워크의 주체로서 충남문화재단의 축제 관련 주요업무 내용은 축제관련 DB 구축, 축제평가시스템 개발 및 축제평가단 운영, 관련기관 및 조직간 정기적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충남 축제네트워크의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지역축제 간 연계 방안 등 발전적 아이디어 교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2〉 축제의 이해관계자

자료 : 강해상(2004), 축제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이벤트국제회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 충남 축제전담기구로의 상설화

충남축제네트워크는 장기적으로 충남축제전담 상설기구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충남 지역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전담 상설기구의 독립적 운영이 중요한데, 법적·제도적 기준에 의해 설치하여 안정성 보장과 동시에 축제의 개최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형식상 조직이 아닌 실행조직으로서의 역할 및 기능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충남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 네트워크 구축 중심으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순수 민간주도로 운영되도록 충남도는 자금의 집행부분만 감시하는 기능을 맡는 이원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충남 지역축제업무의 조정 및 통합과 종합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5. 축제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앞서 언급한 지역축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축제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체가 되고, 지역축제가 자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다.

각 지자체에서도 축제평가의 체계적 시행, 축제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및 축제관련 조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률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축제 지원의 법적인 근거의 토대인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인 곳은 서울, 인천, 충북, 충남, 제주 등이 있는데(<표 4-3> 참조), 제주도의 경우 사전심의제 등 평가관련 조항 포함 및 축제육성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례내용에 포함시켜 축제지원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2007년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축제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내용, 예산지원의 근거 규정, 축제발전기금의 조성, 축제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기획 및 홍보지원의 방향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표 4-3〉 시·도별 축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시·도	조례명칭	제정 년도	관련 조직	조직구성
서울 특별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2006	축제심의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하 위원 구성 •위원장 : 행정(1)부시장 •위원 : 문화국장 및 문화예술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인천 광역시	인천광역시 범시민축제지원에 관한 조례	2000	인천광역시 범시민 축제추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한 25인 이내 •위원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지역단위 시민단체,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경제, 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충청남도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07	충청남도 축제육성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장 :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 :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함<개정 2008. 7. 1> 1. 문화·예술단체 대표 2. 시민·사회단체 대표 3.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축제관련 임직원 4. 충청남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5. 그 밖에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역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8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위원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구성 •위원장 :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 : 문화관광환경국장 •위촉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 지사가 위촉 1. 충청북도의회 의원 2. 문화예술단체 대표 3.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주시	제주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06	제주도축 제육성위 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도지사가 위촉 1. 제주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 2. 유관기관장 5인 3. 문화예술단체 대표 5인 4. 시민사회단체 대표 5인 5.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됨

자료 : 연구자 작성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및 결론

지역축제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으며 지역의 문화가 종합되고 상징화된 지역행사’로서 정의된다.

지역축제 지원이라 함은 ‘지역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각각의 지역축제의 목적에 맞게 진행되기 위해 직접적인 지원인 예산과 간접적 지원인 축제의 기획 및 홍보, 제도, 조직, 평가적 측면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축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정책적 수단’이다.

지역축제 지원체계는 ‘지역축제의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축제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의 총체’로 조작성 정의하였다.

지역축제의 지원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축제의 평가, 기획 및 홍보, 예산, 조직, 제도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하였다.

지역축제 평가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축제가 내부결과보고 형식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외부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축제는 일부로서 축제의 전 과정에 대한 평가는 미흡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축제평가가 지원으로 연계되는 관계성 결여, 평가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결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축제 기획 및 홍보 지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축제기획은 대부분 민간이벤트 회사에서 담당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축제추진위원회의 경우도 외부의 축제전문가 및 지역전문가가 포함되기도 하지

만 대부분 시군의 정책집행자와 관계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축제의 기획이나 집행 과정 중 지역주민이 기획과정에 참여하여 의견 개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축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축제기획 시 지역주민 및 다양한 축제주체의 참여부족, 축제홍보물에 콘텐츠 구성 및 특성 반영 미흡, 축제 DB 구축 및 정보관리 미비, 축제 특성 고려가 미흡한 홍보방법 및 홍보시기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과 각 시군의 축제예산지원 기준은 일반적으로 최초행사 개최 시에 소요예산 비용을 추정하고 내부적으로 예산심의 과정을 걸쳐서 확정하고 다음 개최되는 해의 축제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축제자체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프로그램 개발 등 예산확충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충 또는 삭감하는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다.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한 축제예산의 차등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통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 내의 다른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보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비, 시군비 등의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지원 기준의 불명확, 예산지원의 지속성 결여, 민간부분 투자 미비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조직차원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남도의 대부분 지자체들은 관광 및 문화와 관련된 부서에서 축제 행정에 관한 전반을 지원하며, 각 부서들은 축제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업무, 축제홍보 및 협조요청업무 등의 행정관련 업무에서부터 실질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업무까지 하는 등 각 행정부서의 역할과 업무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축제 조직의 경우 축제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킹 부재, 축제조직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축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충청남도는 지역축제 지원체계와 관련한 법적 근거인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조례들은 비슷한 내용과 목적으로 제정되어 있어, 축제 조례 제정 시 각 시군의 지역성이나 축제의 규모, 수, 특성에 따라 축제조직위원회의 규모와 구성원을 달리해야 하나 현재 제정된 대부분의 축제 관련 조례는 비슷한 항목과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은 상태로, 조례 항목에 축제운영회, 사무국과 같은 실행을 위한 조직의 구성여부 및 기능과 역할, 평가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조례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각 시군의 획일화된 조례의 내용과 구성, 대부분의 조례에서 축제위원회의 구성원과 위원의 선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공무원 및 지역단위에서 문화와 예술에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실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전문가와 축제의 주체인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따른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방안으로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의 기본방향은 객관적인 축제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의 선정, 선정된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방식의 다양화,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차원의 지원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먼저 충남 지역축제의 평가·환류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축제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축제를 통한 다양한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그 성과를 지역축제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방식의 다원화 전략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충남 축제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지원, 축제자료집 및 축제 캘린더 제작·배포 지원, 축제 홍보부스 운영 지원, 지역축제 DB구축, 지역축제 매뉴얼 제작, 축제 아카데미 운영 등의 전략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원의 가장 간단한 방법 중의 하나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지역 축제에 대한 사업비 지원정책으로 모든 축제들이 예산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예산지원의 방법 또한 단순히 축제자체의 개척을 위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축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원이 필요하며, 자생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문화예술관련 예산 증액을 통한 축제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고 축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때 2년 단위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며, 또한 충남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축제가 도비 및 시군 예산으로 개최·운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축제 예산의 자립화가 어려우므로 충남축제발전기금의 조성과 축제장소의 마련을 통한 축제의 입장료 부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 축제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의 핵심에는 축제를 운영하는 주체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지역축제의 지원을 위한 조직으로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참여주체의 문제로 지자체 장이나 지역의 명망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형식적인 지원조직이 아니

라 전문가 및 지역주민 중심의 생산적인 지원조직으로서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축제는 민간 전문 인력의 적극적 참여와 관의 열린 자세로의 지원 및 지역민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협조체제 구축이 중요하므로 지역축제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소통의 통로와 상호간 경험과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는 축제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

축제네트워크는 도-시군간, 시-군간, 민간-관 등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을 포함하는 구조이어야 할 것이며, 충남의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문화관련 사업을 추진 할 충남문화재단을 지역 축제관련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역축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므로 충남에서도 2007년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제로 효과가 미비하여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 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내용, 예산지원의 근거규정, 축제발전기금의 조성, 축제조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 기획 및 홍보지원의 방향과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을 제안했다.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과제

본 연구의 범위는 도비 및 시군 예산이 지원되는 축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민간 주도의 지역축제는 제외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저평가된 민간축제들을 발굴하고 공공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축제의 지원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축제의 발생과 태생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성과중심적인 부분이 있지만, 지역축제는 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경제적 성과와 결과 위주의 경제주의적 접근으로 인해 오히려 차별성이 없는 지역축제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축제는 지역의 총체적인 역량이 결집되는 지역 고유의 문화적 총체이자 문화콘텐츠의 집합체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관련문헌

- 고승익 외(2000). “축제 방문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만족 분석”, 관광학연구, 제23권 제2호, pp. 246-266.
- 강해상(2004). “축제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이벤트국제회의학과, 박사학위논문.
- 권오성(2006). 「지역축제 조직운영체계, 가능한 변화는?」, 문화정책개혁포럼 발제문.
- 김성섭(2006). “수단-목적 사슬 이론을 적용한 탐조객의 가치추구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2008), “지역축제 수요의 추정과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라도삼·이호영(2003), “문화예술 지원체계 및 프로그램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류정아(2006), “한국지역축제 조사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류정아(2007), “지역축제 평가 및 지원체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문화관광부(2006), 「지역축제의 효율적 조직과 운영을 위한 매뉴얼」.
- 문화관광부(2007), 「문화관광축제 평가개선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08 문화관광축제 지원 및 종합평가계획」, 내부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8),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방안」, 내부자료
- 박창규·강해상(2005), “광주 지역축제의 평가시스템 개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송태갑·박창규(2004), 「전남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 안경모·이광우(2005), “지역축제의 관광가치추정: 이천도자기축제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호텔경영학회.
- 이훈(2006), “문화관광부 축제지원 시스템과 정책에 대한 평가”, 관광연구논총(제18호),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정강환, “관광이벤트”, 월간이벤트, 2004.

황윤용(2005). “지역축제의 장소마케팅 노력에 대한 장소브랜드 관계결속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29권 제2호, pp. 225-276.

함영덕(2001). “지역축제이벤트관광의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Getz. D.(1997), 「Event Management & Event Tourism」, Cognizant Communication Corporation.

Morrison, Alastair M.(1989), 「Hospitality and Travel Marketing」, Delmar Publishers.

2. 관련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천안시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

공주시 홈페이지, <http://www.gongju.go.kr/>

보령시 홈페이지, <http://www.boryeong.chungnam.kr/>

아산시 홈페이지, <http://www.asan.go.kr/>

서산시 홈페이지, <http://www.seosan.go.kr/>

논산시 홈페이지, <http://www.nonsan.go.kr/>

계룡시 홈페이지, <http://www.gyeryong.go.kr/>

금산군 홈페이지, <http://www.geumsan.go.kr/>

연기군 홈페이지, <http://www.yeongi.go.kr/>

부여군 홈페이지, <http://www.buyeo.go.kr/>

서천군 홈페이지, <http://www.seocheon.go.kr/>

청양군 홈페이지, <http://www.cheongyang.go.kr/>

홍성군 홈페이지, <http://www.hongseong.go.kr/>

예산군 홈페이지, <http://www.yesan.go.kr/>

태안군 홈페이지, <http://www.taeon.go.kr/>

당진군 홈페이지, <http://www.dangjin.go.kr/>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충남발전연구원 공간계획연구부 김경태 책임연구원

기본연구 2010-20 · 충남 지역축제 지원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글쓴이 · 김경태 / 발행자 · 박진도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0년 12월 31일 / 발행 · 2010년 12월 31일

주소 ·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53(직통)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59

ISBN · 978-89-6124-154-0 03350

<http://www.cdi.re.kr>

©2010.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